

법무법인 지평

해외진출

10주년

보고서

법무법인 지평 해외진출 10주년 보고서

2017

2017

JIPYONG 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EL 02.6200.1600 FAX 02.6200.0800

www.jipyong.com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지평 17년



올바른 마음과 다짐으로
지난 17년을 기록해 온 것처럼
앞으로의 100년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새 지평을 쓰겠습니다.

100년 地平

법무법인 지평 해외진출 10주년 보고서

Highlights	02
인사말	06
지평의 해외업무	08
지평의 해외사무소	10
중국 상해 사무소	12
베트남 호치민시 사무소	20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	28
캄보디아 프놈펜 사무소	36
라오스 비엔티안 사무소	44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사무소	48
미얀마 양곤 사무소	56
러시아 모스크바 사무소	64
이란 테헤란 사무소	72
지평의 Global Legal Network	80
지평의 기타 해외지역 업무	82
지평의 Global Vision	84
법무법인 지평	88

Highlights



한국 로펌 중 최다
해외사무소

9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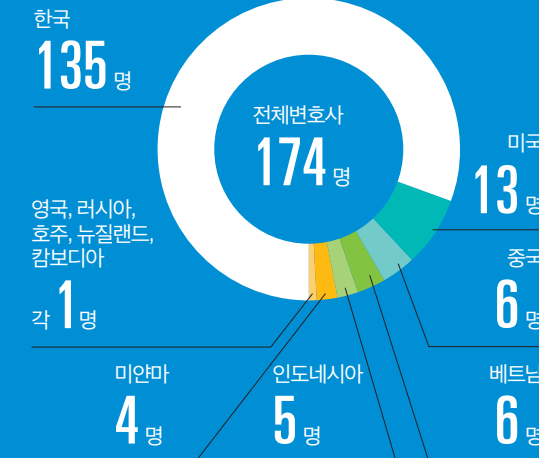


한국 로펌 중 최다
해외 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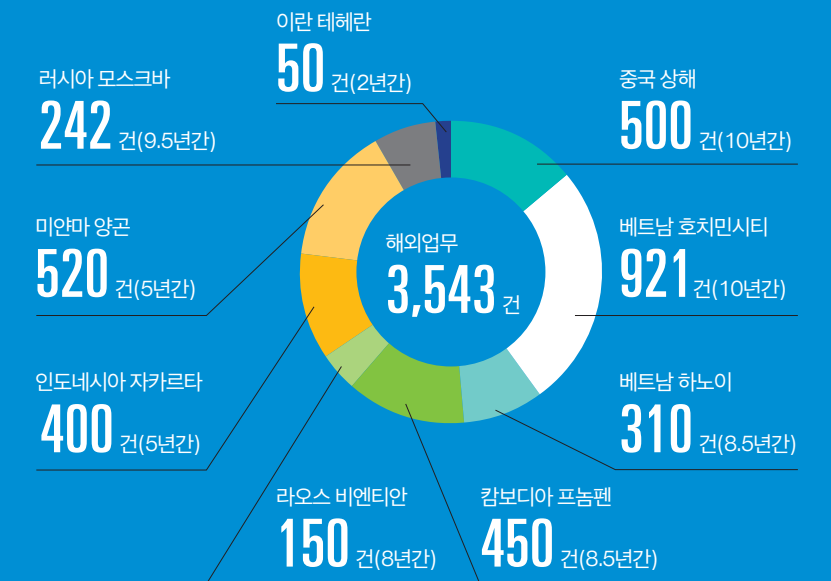
67 명



다양한 변호사 구성



해외업무 처리 건수



Highlights

해외업무 책자 4회 발간



지평은 미얀마 경제제재 해제 이후 최초로 2014년 미얀마 법령과 실무를 집대성한 일본어판 '미얀마 외국인투자법제와 실무'를 발간하여 일본기업들과 일본 로펌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어 일본어판 '미얀마 세무 안내' 소책자를, 2015년에는 한국어판 '미얀마 세무 안내' 소책자를, 2016년에는 일본어판 '미얀마 노무 안내' 소책자를 각 발간하였습니다.

해외업무 세미나 17회 개최



지평은 2009년 4월 러시아 에너지·자원법제 세미나를 시작으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투자법제 세미나, 해외분쟁 해결방안 세미나, 중동 지역 세미나 등 총 17회의 해외업무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해외 각국의 불명확한 법령과 잘 알려지지 않은 실무 경험을 고객들과 공유함으로써 고객들의 해외진출 및 투자에 도움을 드려 왔습니다.

해외업무 뉴스레터 445회 발간



지평은 해외업무 뉴스레터를 총 445회 발간하였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뉴스레터, 미얀마 뉴스레터(국문/일문), 이란·중동 뉴스레터,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중국 상해 뉴스레터(국문/중문) 등을 통하여 국가별로 다양한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업무 관련 100여 회 외부 기고



지평은 다양한 매체에 해외업무 관련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 9월부터 2012년 8월까지 한경비즈니스 국제면에 총 88회 여러나라 정보를 연재하였고, 한국경제, 매일경제, 서울신문, 머니투데이, 법률신문, 리걸타임즈 등 주요 신문과 잡지에 해외업무 관련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업무 관련 외부 강의 및 세미나 참가 다수



지평은 금융투자협회, 국제한민족재단, 국토연구원, 금융감독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법제처, 아시아법연구소,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자원개발협회, 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외국어대학교 등의 해외업무 관련 외부 강의 및 세미나에 참가하여 왔습니다.

해외 연구용역과제 다수 수행



지평은 러시아의 에너지 개발 법제 연구(법제처 발주), 라오스 투자 법률가이드(주 라오스 대사관 발주), 베트남·인도네시아 해외상장 환경 법률자문 용역(한국거래소 발주), 투자·비즈니스 가이드-호주편(법무부 발주) 등 다양한 해외지역과 주제에 관한 연구용역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인사말

2007년 첫 해외사무소를 개설한 법무법인 지평이
해외진출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중국과 베트남 2곳에서 시작한 해외사무소가 이제는 9개가 되었습니다.

중국 상해, 베트남 호치민시와 하노이, 캄보디아 프놈펜, 라오스 비엔티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미얀마 양곤, 러시아 모스크바, 이란 테헤란.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확고하게 자리잡고, 우랄산맥과 티벳고원을 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지평은 해외진출 한국기업들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해외에서 수많은 업무를 함께 처리해왔습니다.

지평의 해외사무소와 서울 본사는 고객들의 해외 현지법인과 서울 본사를
동시에 자문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정말 많은 고객들이 성원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를 믿고 함께 해주신 많은 고객들 덕분에 한국 로펌 중
최고의 해외전문성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지평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해외사업을 더욱 심화 발전시키고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미 해외사무소가 있는 지역에서는 현지 전문성의 깊이와 폭을
더욱 심화 확대하여 고객기업들이 직면하는 비즈니스상의 이슈와 리스크를
완벽하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해외사무소가 없는 지역의 경우, 저희 지평의 글로벌리얼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켜드리는 한편, 추가적인 해외사무소
개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은 너무나도 중요한 과제이고,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법무법인 지평은 우리 기업들의 해외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드리으로써 조력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국가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양영태**



지평의 해외업무

- 한국 로펌 중 가장 많은 해외사무소 보유!
- 해외사무소들의 해외 지역전문성과 본사 해외업무팀들의 분야별 전문성을 결합하여 현지 밀착 원스톱 법률서비스 제공!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10년간 중국 및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와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이란 및 중동, 일본, 브라질·중남미, 호주, 유럽, 미국 등 해외 각국에서 M&A, 합작투자, 금융, 부동산 개발, 에너지·자원, 건설, 자본시장, 조세, 노동 및 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해오으로써 국내 최고의 해외 전문로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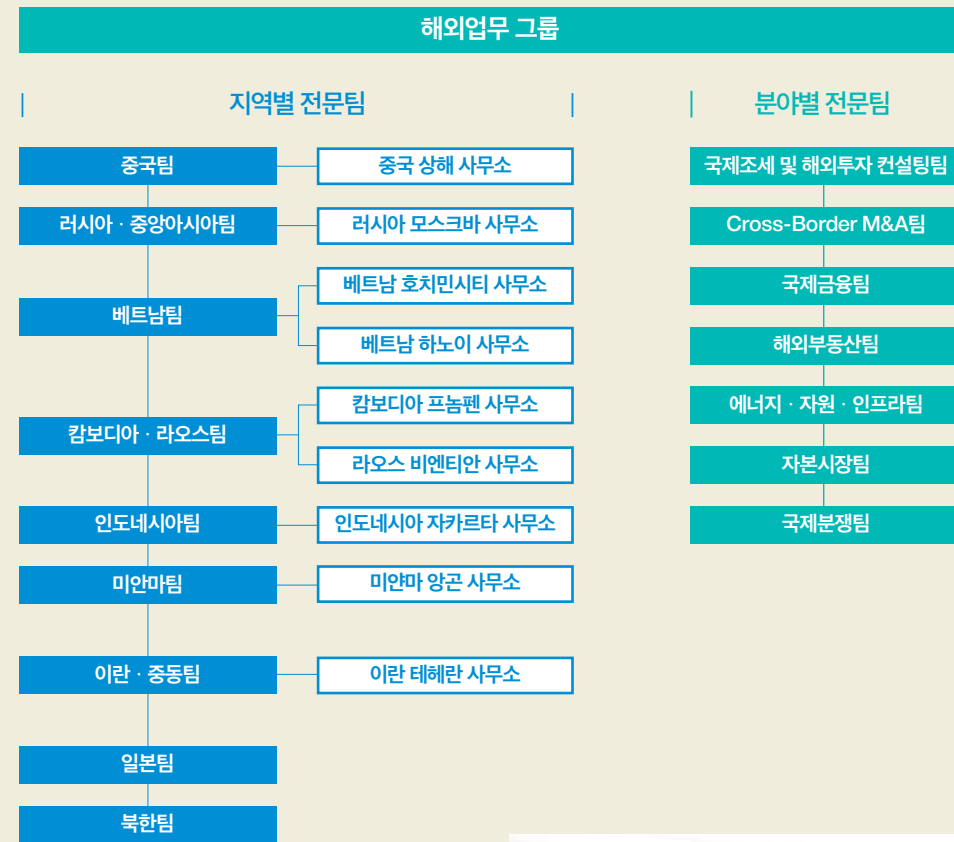
또한 지평은 M&A 및 금융거래 등의 경험과 전문성 없이 해외 현지에서 일상적 자문을 제공하는 것과는 달리, M&A, 금융, 부동산개발, 에너지·자원, 건설, 자본시장 등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된 본사의 해외업무팀들이 각 해외사무소와 협력하여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9개의 해외사무소는 현지에서 고객들과 밀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규 해외사무소를 계속하여 설립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기업의 해외 진출에 발맞추어 해외 현장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평은 해외 지역전문성 없이 그때그때 해당 지역 로컬 로펌에 의존하여 자문을 제공하는 종래 방식과는 달리, 해외 각 국가별 지역전문변호사들과 해외 사무소들이 그동안 축적해온 해외 지역전문성에 근거하여 자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 해외 현지법인 설립, 합작투자 자문
- 해외기업 M&A 및 지분투자 자문
- 해외 금융 자문
- 해외 부동산개발 자문
- 해외 에너지·자원 자문
- 해외 인프라 및 건설 자문
- 국제 자본시장 관련 자문
- 국제 조세 자문
- 해외 노동 자문
- 각종 국제계약 자문
- 해외 소송 및 중재 등 국제분쟁해결
- 통상, 반덤핑 등 무역 관련 자문
- 해외 특허출원 및 지적재산권 관련 자문



지평의 해외사무소



01

중국 상해 사무소

주소 및 연락처

Room 2310,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Tel. +86-21-5208-2808
Fax. +86-21-5208-2807
E-mail. shanghai@jipyong.com

Main Contacts

중국 상해 사무소
최정식 변호사
E-mail. jschoi@jipyong.com
Tel. +86-21-5208-2808

본사 중국팀
정철 변호사
E-mail. cjeong@jipyong.com
Tel. +82-2-6200-1753

설립일

2007. 9. 17.



사무소 소개

법무법인 지평은 2002년부터 중국 업무를 전담하는 중국팀을 구성하여 중국변호사를 영입하고, 중국 유수의 법률사무소들과 제휴하여 전문적인 중국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중국 법대에서 연수를 마친 한국변호사와 중국법대를 졸업한 중국변호사가 중심이 된 본사 중국팀은 상해 사무소 및 본사 전문팀들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7년 9월 중국 상해 사무소를 설립하여, 중국 업무에 정통한 최정식 한국변호사와 중국과 한국에서 폭넓은 실무경험을 쌓은 경영동 외국변호사(중국)를 비롯한 우수한 중국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중국 현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해 사무소는 본사 중국팀과 협력하여, 한국기업의 중국 현지법인 설립, 합작투자, 지분투자, M&A, 부동산개발, 금융·증권 업무, 각종 분쟁해결 및 중국 기업의 한국 IPO, 한국 현지법인 설립, 합작투자, M&A 및 주 상하이 총영사관 민원 업무 대행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중국 북경시, 상해시, 산둥성 청도시, 요녕성 심양시, 광둥성 광주시, 섬서성 서안시, 사천성 성도시, 충칭시 등에 소재한 중국 법률사무소 및 회계사무소, 변리사 등과 업무를 제휴하여 보다 전문적으로 중국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해 사무소 변호사

최정식 변호사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제31기 수료
- 상해한국상회, 서안한국상회 자문위원
- 상해총영사관, 코트라 상해무역관 고문변호사
- 절강성 항주시 항주중재위원회 중재원
-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중국 상해 사무소장

부응 외국변호사(중국)

- 화동정법대학 법학 학사(지적재산권)
- 중국 사법시험 합격(2008년)
- 중국 상해화리법률사무소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중국 상해 사무소 중국법률고문

경염동 외국변호사(중국)

- 중국 산동정법대학 법학 학사
- 중국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1998년)
- 중국 산동덕형 변호사사무소 변호사
- 중국 상해화리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중국 상해 사무소 시니어 중국법률고문

조준금 외국변호사(중국)

- 화동이공대학 법대 법학 학사 및 석사
- 화동정법대학 경제법 박사
- 중국 사법시험 합격(2008년)
- 중국 상해화리법률사무소 변호사
- 상해 삼달대학 교수
- 법무법인 지평 중국 상해 사무소 중국법률고문

임호 외국변호사(중국)

- 중국정법대학 경제법 학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국제법 석사 및 박사
- 중국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1995년)
- 중국 화동이공대학 법학원 교수
- 중국 상해화리법률사무소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중국 상해 사무소 시니어 중국법률고문

장옥엽 외국변호사(중국)

- 화동이공대학 법대 법학 학사 및 석사
- 중국 사법시험 합격(2011년)
- 중국 상해화리법률사무소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중국 상해 사무소 중국법률고문

본사 중국팀 변호사

정철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제31기 수료
-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Gould School of Law LL.M.(법학석사)
- 미국 뉴욕주 변호사(2010년)
- IFLR, Leading Lawyer 선정(2014-2017년)
-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김옥림 외국변호사(중국)

- 중국정법대학 법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민사소송법)
- 중국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2000년)
- 산동성 해사변호사사무소 변호사
-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 법무법인 지평 시니어 외국변호사

정선열 변호사

- KAIST 산업디자인과 졸업
- 숭실사이버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삼성SDS 컨설팅본부 IT컨설턴트
- 사법연수원 제43기 수료
-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박영주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수료(조세법)
- 사법연수원 제25기 수료
- 부산지방법원 판사(행정부, 민사부) 역임
- 중국 화동정법대학 연수
-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김이태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제35기 수료
-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Gould School of Law LL.M.(법학석사)
-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임혜정 변호사

- 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정치외교학과 졸업
- 삼성물산(주) 상사부문 화학본부
- 삼성 에스원 기획지원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김문희 변호사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 졸업
-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 Visiting Scholar, Fordham University School of Law
-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이민희 변호사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호주 Griffith University (B.A.)
- 중국 수도경제무역대학 연수
- STX Panocean(주) 해외영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곽은비 변호사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주요 업무 분야

소송, M&A, 금융·증권, 해외투자, 건설·부동산, 도산, 구조조정, 해상, 가사, 형사, 지적재산권, 노사관계 등

주요 실적

한국 교육회사의 중국진출에 대한 자문

한술, 대교의 중국 교육사업 진출을 위하여 투자구조 설계, 중국교육 관련 법률검토, 계약서 작성 등 법률자문을 제공

한국 제조업체와 중국업체 간의 매매계약 관련 분쟁해결

한-중 기업 간 설비공급계약 이행 관련 설비대금반환청구 중재사건에서 한국기업을 대리하여 상해화리로펌과 협력하여 전부승소 중재판정을 받음

한국 의류업체와 중국 원단가공업체 간의 분쟁해결

중국 임가공업체가 계약을 위반하여 가공대상물을 처분한 사건에서 한국기업을 대리하여 상해화리로펌과 협력하여 5년간 최고인민법원 심판까지 4번의 심급별 재판을 거쳐 최종적으로 완전승소함

- NHN엔터테인먼트를 대리하여 중국 온라인쇼핑 프로젝트 관련 자문
- 한국 조선회사의 중국 연대시 조선소공장 설립(약 1조원 투자규모) 자문
- KTB의 해외투자 및 역외펀드 관련 업무 자문
- 우리은행을 대리하여 금호그룹의 중국 현지법인 설립 및 인수 자금의 대출 자문
- 금호석유화학의 남경 합작법인 설립 관련 자문
- CGV의 중국 상해법인 설립 관련 자문
- 중국 성도시 소재 화학기업의 한국상장 관련 자문
- 중국 심천시 소재 정밀전자기업의 한국상장 관련 자문
- 인터넷게임회사, 자동차부품제작회사 등의 중국 현지법인 청산, 파산 관련 자문
- 한국 의료기관의 중국진출 자문
- 한국 요식업회사의 중국법인 매각 관련 자문
- 한국 건설회사와 중국 현지법인과외의 건설회사 합작자문
- 한국 물류회사의 중국법인을 대리하여 채권침해 분쟁해결
- 한국회사와 중국기업 간의 대위변제 관련 분쟁해결
- 한국 반도체소재제조법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 및 강제집행 관련 분쟁해결
- 합자회사를 대리하여 공장부지 및 대출 분쟁해결
- 한국 건축사무소를 대리하여 용역계약 관련 분쟁해결
- 한국 설비제조법인을 대리하여 합작 관련 분쟁해결

중국 상해 사무소의 강점

지평 중국 상해 사무소는 한국 대형로펌으로서 지난 10년간 중국 법률시장에 대한 정확하고 전문적인 법률지식에 기초하여, 시니어 변호사들의 리더쉽과 주니어 변호사들 그리고 중국 협력 로펌의 튼튼한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연구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상해에서 유수의 한국 업무 전문 로펌으로 굳건히 자리잡고 있습니다.

사무소장 인터뷰

중국 상해 사무소장 최정식 변호사



상해 사무소에 언제 부임했는지?

2007년 8월 경에 상해 사무소 설립 준비를 하면서 부임했습니다. 벌써 만 10년이 됐습니다.

상해 사무소의 강점은?

첫째는 변호사와 스태프의 훌륭한 팀워크이며, 둘째는 그 팀워크를 바탕으로 고객의 니즈에 눈높이를 맞추어 실제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를 넘어 고객이 직면한 어려움과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동반자를 자임하고 있습니다.

상해 사무소가 주로 하는 업무는?

수십 개의 한국계 현지기업의 일상적 법률문제에 대한 법률자문과 중국 내 소송과 중재에 대한 법률자문 및 M&A, 중국기업 한국 IPO, 기업결합심사, 반덤핑 대응 등 프로젝트성 법률자문입니다.

상해 사무소의 주요 고객들은 어떤 업종들인지?

10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서 특정 업종에 치우치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 철강, 화학, 전력 등 전통적인 제조업, 소비재 제조업, 물류 유통업, 금융 및 증권업, 요식업 프랜차이즈, 교육업 그리고 최근 중국에서 핫한 화장품, 성형, 병원업 등 고객 업종이 다양합니다.

사무소장으로서의 포부는?

지난 10년과 같이 앞으로의 10년도 재미있고, 성장하는 상해 사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구성원이 행복한 사무소가 되어야겠지요. 더하여 상해 사무소가 중국기업도 많이 자문하여 명실상부한 중국 현지화를 이루길 희망합니다.

지평 해외진출 10주년을 맞는 소회는?

10년 사이에 중국, 동남아, 중동,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에 해외사무소를 설립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라 지평 해외사업팀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해외사무소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후배 변호사들에 대한 조언은?

해외사무소에서의 업무는 변호사로서의 법률능력 뿐만 아니라 관리 능력이나 대외교류 능력, 자기절제, 도전의식, 기업가정신 등 종합적 능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분이라면 열정적으로 해외업무를 개척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경업동 외국변호사(중국)



본인을 소개하면?

저는 중국 청도시에서 출생한 한족 변호사로서 산둥 정법대학교를 졸업하고 화동정법대학교 석사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1995년부터 산동덕형 변호사사무소에서 변호사 업무를 보조하였고 1998년에 중국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산동덕형 변호사사무소 변호사, 산동덕형 변호사사무소 서울대표처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04년부터 법무법인 지평 본사에 입사하여 중국법률고문으로 근무했습니다. 2005년 중국으로 귀국하여 2007년 지평 상해 사무소 설립을 위한 준비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상해 사무소 개소 후 협력 로펌 상해화리로펌의 소속으로 지평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평 상해 사무소에서 일하면서 기억에 남는 업무는?

지난 10년간 500여 건의 자문과 소송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중 5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속에서 최고인민법원 재심을 포함한 4차례의 각 심급별 재판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완전승소 판결을 이루어냈던 라시미사 복장 계약이행 분쟁사건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의 재심 신청을 통하여 파기환송을 이끌어 냈고 다시 진행된 1심, 2심 재판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완전승소를 한 소송 사건입니다.

중국에서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유의할 점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 매사에 적법성 검토를 해야 하고, 모든 거래에 관하여 문서화하며 기록을 일상화하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 변호사의 법률검토를 반드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국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바람직한 대처 방안은?

분쟁이 불가피할 때는 분쟁이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협상, 조정 등 ADR을 적극 활용하고, 소송 또는 중재가 불가피할 경우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변호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유리한 소송 또는 중재 전략을 구상하고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장래 포부는?

지평 본사와 상해 사무소의 협력, 그리고 화리로펌과의 협업을 통하여 상해에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상의 로펌으로서의 위상을 차지하고 지켜가는 것입니다.

고객 인터뷰

대교 중국법인장 이동철 상무/ 한솔교육 중국법인장 양성환 상무



현재 중국진출 상황은 어떠한지?

이동철 상무 시간이 좀 걸렸지만 중국 현지인을 대상으로 사업한지 2년이 지나면서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본사에서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성환 상무 2013년부터 중국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당시 회원 90명에서 현재 500명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동안 심양합작 프로젝트, 상해 프로젝트를 완성시켰고 현재 전망이 밝아 보입니다.

중국의 제도와 한국의 교육문화가 다른데 중국진출시 어려움은 없었는지?

이동철 상무 40년 동안 한국 교육사업만 하다 보니,

그 고정관념을 중국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중국과 한국 교육사업의 차이를 인정하고 중국만의 맞춤형교육방식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양성환 상무 2000년부터 중국 사업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법령연구나 비즈니스 모델의 방향을 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한국식의 가정방문교육이 중국 내에서 제한됨에 따라 현재는 중국 법령의 학습을 통해 비즈니스 방향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 사업과정에서 지평이 도움이 되었는지?

이동철 상무 예전에는 중국 현지 로컬법인에서 자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자문 결과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 태도 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평은 커뮤니케이션 뿐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고 성실히 답변해주셨습니다.

양성환 상무 중국진출을 고려하면서 중국 현지 법령의 학습 뿐만 아니라, 실무가 입장에서 현장의 대화를 변호사님들과 논할 수 있어서 전략적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지평의 강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평에 바라는 점은?

이동철 상무 지평의 특징이라 함은 저희가 질의사항을 보내드리면 담당변호사분이 정리 한 후, 시니어 변호사분이 1차 검토를 진행하고 사무소장님께서 2차 검토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검토과정에서 그동안 실수가 없었기에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지평의 강점이라 함은 한국기업의 중국진출시에 대한 많은 경험이 있으므로 지평의 조언이 많은 한국기업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평이 더 많은 중국파트너와 관계를 구축하여, 중국과 한국 기업들 간의 다리 역할을 해줬으면 합니다.

양성환 상무 그동안 지평을 통해 많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합법적인 경영조직 구축의 방향성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중국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중국회사와 파트너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지평은 MOU, 본 계약서 체결에 함께 참석하여 협상을 진행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지평을 통해 더 많은 합작사를 발굴, 협력사 구축을 희망합니다.

02

베트남 호치민시티 사무소

주소 및 연락처

#1605, Centec Tower, 72-74 Nguyen Thi Minh Khai St., Ward 6, Dist. 3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28-3910-7510
 Fax. +84-28-3910-7511
 E-mail. hcmc@jipyong.com

Main Contacts

베트남 호치민시티 사무소

정정태 변호사
 E-mail. jtjung@jipyong.com
 Tel. +84-28-3910-7510

본사 베트남팀

김상준 변호사
 E-mail. sjkim@jipyong.com
 Tel. +82-2-6200-1715

설립일

2007. 8.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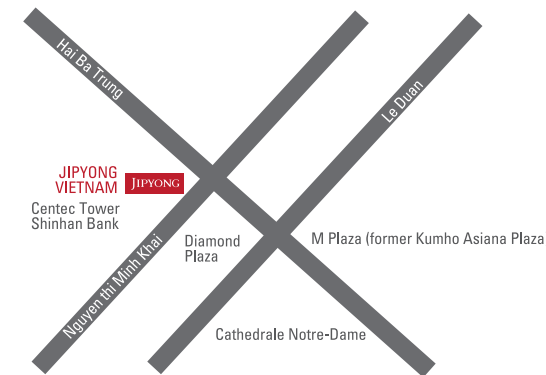
사무소 소개

법무법인 지평 베트남 호치민시티 사무소는 한국기업의 베트남 진출과 현지 경영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7년 8월 31일 베트남의 경제 중심지인 호치민 시티(Ho Chi Minh City)에 설립되었습니다.

호치민시티 사무소에는 한국변호사 2명, 베트남변호사 2명, 베트남 수습변호사 1명, 한국인 지역전문연구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소장인 정정태 변호사는 서울 본사에서 M&A 및 건설·부동산 분야를 전문으로 만 5년간 근무한 뒤 2011년 호치

민시티 사무소장으로 부임하여 만 6년 7개월째 근무 중입니다. 시니어 베트남변호사인 Khoa 변호사는 미국계 로펌인 Russin & Vecchi 및 호주계 로펌인 Allens에서 근무하다 2008년부터 호치민시티 사무소에 합류하였습니다. 주니어 베트남변호사인 Trang 변호사와 Thuy 수습변호사는 호치민시티 사무소의 창립 멤버로 10년째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랜 기간 함께 많은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토대로 호치민시티 사무소는 업무전문성과 지역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신뢰성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호치민시티 사무소는 많은 한국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현지법인 설립, M&A, PF, 금융거래, 분쟁 등을 성공적으로 자문하였고, 삼성그룹, 포스코그룹, 신한금융그룹을 비롯하여 40여 개 한국기업들의 현지법인에 대해 일반 운영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IFLR 1000 2013년판 Banking and capital markets 분야와 IFLR 1000 2016년 및 2017년판의 Banking and Finance 및 M&A 분야에서 현지 활동 중인 한국계 로펌 중 유일하게 “주목할만한(notable)” 로펌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정정태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수료(헌법)
- 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베트남 호치민시티 사무소장

신주연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 한운시스템(주) 사내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베트남 호치민시티 사무소 변호사

BUI Tran Dang Khoa 외국변호사(베트남)

- 베트남 Ho Chi Minh City University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졸업(영어학)
- 베트남 Ho Chi Minh City University of Law 졸업
- Vietnam-Singapore Industrial Park, Binh Duong-Customer Service Executive
- 베트남 호치민 Russin & Vecchi 수습변호사
- Allens Arthur Robinson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베트남 호치민시티 사무소 외국변호사

TRAN Thi Phuong Trang 외국변호사(베트남)

- 베트남 Ho Chi Minh City University of Law 졸업
- Lawyers' Training Course in Ho Chi Minh City Branch of Hanoi Legal Institution 수료
- 법무법인 지평 베트남 호치민시티 사무소 외국변호사

Do Thanh Thuy 외국수습변호사(베트남)

- 베트남 Ho Chi Minh City University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y 졸업(영문학)
- 베트남 Ho Chi Minh City University of Law 졸업
- Lawyer's Training Course in Ho Chi Minh City Branch of Judicial Academy 수료
- 법무법인 지평 베트남 호치민시티 사무소 외국수습변호사



본사 베트남팀 변호사

양영태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제24기 수료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수석파트너, Managing Partner
-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김상준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졸업(법사회학)
- 사법연수원 제25기 수료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School of Law LL.M.(법학석사)
-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강울리 변호사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외교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제27기 수료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석사과정 졸업(통상법무학)
- 미국 Harvard Law School LL.M.(법학석사)
- IFLR, Leading Lawyer 선정(2012년, 2017년)
-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 미국 Columbia Law School LL.M.(법학석사)
- 미국 뉴욕주 변호사(2007년)
- 미국 White & Case LLP 뉴욕사무소 International Lawyer 근무
- IFLR, Leading Lawyer 선정(2012-2017년)
-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한승혁 외국변호사(호주)

- Bond University, 법학사
- 고려대학교, 법학석사(최우수졸업, 총장상 수상)
- 호주 빅토리아주 변호사(Solicitor & Barrister)
- Freehills 국제법률회사 소속변호사
- Allens Arthur Robinson 국제법률회사 선임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시니어 외국변호사

김관수 변호사

- 연세대학교 기계전자공학부 졸업
- SK텔레콤 상품개발팀
- 한국투자신탁운용 실물자산운용본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 CFA, 투자자산운용사 자격 취득
-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주요 업무 분야

종합 법률서비스 제공, 소송, M&A, 금융·증권, 해외투자, 건설·부동산 등

주요 실적

LS전선과 화승 베트남법인 성공적인 상장 자문

2016년 베트남회사로는 최초로 LS전선과 화승인 더스트리의 현지법인들의 한국거래소 상장을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음

베트남회사들이 자본시장에서 대규모 자금 조달을 하기에 베트남 시장은 협소하여 외국에서의 상장을 추진하고자 하는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음. 한국거래소도 외국기업의 상장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으나, 베트남법과 한국법의 제약으로 인하여 베트남회사가 직접 한국거래소에 상장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 그래서 베트남회사의 지분을 출자하여 한국에 SPC를 설립하고 이를 한국거래소에 상장하는 구조를 통하여 성공적으로 상장을 할 수 있었음

지평 호치민시티 사무소는 서울 본사와 협업하여 위와 같은 상장 구조를 설계하기 위하여 베트남 법률을 검토하였고, 현지법인의 지분을 현물출자하기 위한 현지 인·허가, 현지법인의 실사 및 거래소에 제출할 법률의견 작성을 수행하였음



신한은행 법인화 및 합병 자문

2009년 외국계 은행 최초로 현지 지점을 법인 전환하는 것을 자문한 데 이어 2011년 종래 베트남 국영 은행과 합작설립하였던 은행(신한비나)과 지점에서 법인 전환한 100% 자은행(신한베트남)과의 합병을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음. 베트남에서 외국계 은행 간의 합병으로는 최초 사례임

CJ대한통운 현지법인들 조직 통합 자문

CJ그룹의 대한통운 인수로 그룹 내 물류회사들(대한통운 및 GLS)이 보유한 현지법인들의 조직을 통합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분양수도와 자산양수도 거래 및 청산 과정을 거쳐 3개 현지법인의 조직을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을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음



현대미포조선과 현대해상화재보험을 대리하여 베트남 국영 물류회사 상대 중재 승소

현대미포조선 현지법인(현대비나신)의 선박 수리와 관련하여 선주인 베트남 국영 물류회사(GEMAD EPT)가 베트남 국제중재센터(VIAC)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현대비나신 및 그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을 대리하여 100% 승소하였음

주요 대기업 및 금융기관 Retain 자문

현재 한국계 금융기관 대부분(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과 삼성그룹 현지 계열사 대부분(삼성에스원,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웰스토리, 삼성전기, 삼성화재해상보험, 삼성SDS, 제일기획, 호텔신라) 및 포스코그룹 현지 계열사 대부분(포스코 대우, 포스코 베트남, 포스코 베트남홀딩스, 포스코 ICT, 포스코 SS VINA, 포스코 VHPC, 포스코 VST)의 일반 운영 자문을 하고 있음

- CJ O Shopping을 대리하여 현지 케이블방송사와 합작으로 홈쇼핑회사 설립 자문
- 롯데제과를 대리하여 현지 상장 제과회사인 Bibica의 지분인수 자문 (한국 회사가 베트남 상장사를 인수한 최초 사례)
- 호텔롯데를 대리하여 호치민시 소재 5성호텔(Legend Saigon)의 인수 자문
- 롯데마트 베트남법인을 대리하여 현지 10여 개의 지점 개발 자문
- 신한금융투자를 대리하여 현지 증권사 인수 자문 (한국 증권사가 현지 증권사 지분 100%를 인수한 최초 사례)
- 미래에셋캐피탈을 대리하여 현지 Finance Company의 설립 자문 (한국계 금융기관이 현지 Finance Company를 설립하거나 인수하는데 성공한 유일한 사례)
- 산업은행을 대리하여 호치민시 금호아시아나플라자의 Project Finance 자문
- LS전선의 현지 자회사들과 화승 현지법인의 한국거래소 상장 자문 (베트남기업이 한국거래소에 상장한 최초 사례)

베트남 호치민시티 사무소의 강점

지평 베트남 호치민시티 사무소는 한국기업의 베트남 업무에 대해 가장 많은 경험과 전문성 및 성공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한국기업의 현지 법인과 Retain 계약을 맺고 일반 운영 자문을 수행하고 있어, 현지법인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요소 및 해결 방안에 대해 충실한 분석 및 자문이 가능합니다. 또한 호치민시티 사무소는 본사에서 다년간 업무를 수행한 파트너변호사가 현지에 장기 주재하여, 현지에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Managing 및 수행이 가능하고, 한국 법제도와와의 비교 검토를 통해 한국 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문을 수행하고 있으며, 글로벌 로펌(Allens)에서 다년간 업무를 수행한 시니어 베트남변호사가 근무하여 국제거래와 분쟁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사 베트남팀은 다양한 업무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포진하고 있고, 가장 많은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기에 여러 지역의 유사 사례 및 법제도 비교 검토를 통한 폭넓은 자문이 가능합니다.



베트남 호치민시티 사무소장 정정태 변호사



언제 호치민시티 사무소에 부임했는지?

2006년 4월 육군 법무관을 제대하고 바로 법무법인 지평에 입사하여 자문그룹(회사)에서 M&A와 건설·부동산 업무를 맡아 5년간 근무하였고, 2011년 3월에 호치민시티 사무소에 부임하였습니다.

호치민시티 사무소의 특징과 강점은?

한국변호사와 베트남변호사의 경험이 풍부하다는 것이 다른 한국 로펌과 비교되는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베트남변호사 3명 중 2명은 2007년 창립 때부터 함께하였고, 나머지 1명도 2008년부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호치민시티 사무소에 부임한 지 6년 7개월째여서, 호치민시티에 있는 한국변호사 중 가장 오래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다른 한국 로펌은 본사 근무 경력이 없거나 짧은 외국변호사가 사무소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본사에서 만 5년간 근무하여 전문성을 쌓은 사무소장이 근무한다는 점도 강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전문성과 경험이 가장 풍부하다고 자부합니다.

베트남 경제와 한국기업 진출 현황 및 전망은?

국고 수교 후 초기에는 섬유와 신발 등 노동집약적 경공업 기업들이 많이 진출하였습니다. 경공업 분야는 최근 들어서도 중국에서 이전하거나 TPP와 FTA 수혜를 기대하고 새로이 진출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중공업과 부동산 분야의 투자가 부쩍 늘었습니다. 한국기업의 진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베트남이 2007년 WTO에 가입하면서부터입니다. 이 때 법률시장도 개방되어 저희도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업과 유통업체를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 업종들이 진출하였습니다. 2010년대 들어서는 삼성전자 제2공장이 들어서면서 하노이와 북부 지역에 전자업종을 중심으로 한국기업이 활발히 진출하였습니다. 베트남 경제가 연 6~7% 이상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므로, 제조업체의 수출 생산기지 역할 뿐만 아니라 내수시장 확대를 노리는 서비스 업종의 진출이 계속 이어지리라 예상됩니다.

호치민시티 사무소 향후 전략은?

기진출한 한국기업들의 사업 확장과 일반 운영에 대한 자문을 꾸준히 하고 있고, 신규 진출기업의 법인 설립, M&A 등 자문 의뢰가 계속 늘고 있어 2016년에는 한국변호사도 추가로 총원하였습니다. 가장 풍부한 현지 업무 경험을 갖춘 인적 구성을 토대로 향후에는 SOC, 국제분쟁, 무역제재 등 보다 전문화된 업무 영역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그동안 해외에서 일하면서 기억에 남거나 보람 있었던 일들은?

저희가 자문한 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고객의 사업이 번창하는 소식을 접할 때 한국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에 일조하였다는 자부심이 생기고, 한국기업의 베트남 진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

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희가 CJ E&M을 대리하여 현지 영화 제작 투자를 몇 건 자문하였는데, 그 영화들이 현지 박스오피스 역대 1, 2위 기록을 세우고, 엔딩 크레딧에 저희 이름을 넣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객이 저희 업무에 만족하시고 감사 인사를 전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호치민시티 사무소 공익활동은 어떤 것이 있는지?

주호치민시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는 몇 년 전부터 건너 대학과 협력하여 다문화가정 여성의 직업훈련 및 자녀들의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사단법인 두루와 같이 위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직 큰 도움은 못드리고 있지만, 금전적 도움 뿐만 아니라 저희 전문성을 살려서 이혼, 친자확인, 양육비 청구, 상속 등의 법률자문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해외사무소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후배 변호사들에 대한 조언은?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는 로스쿨 인턴들이 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기소개서를 보면 외국어 구사 능력이나, 해외 거주 경험, 국제중재대회 참가 이력 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제가 한국변호사로서 베트남 업무를 하며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는 합리적인 리걸 마인드입니다. 한국변호사가 아닌 미국이나 다른 외국변호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 법이든 그 기본이 되는 법체계와 논리를 잘 이해하면 이를 토대로 다른 나라 법을 습득하고 해석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반면 기본 법논리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외국 법을 문언대로만 읽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그 나라 언어 전공자의 일이지 법조인으로서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BUI Tran Dang Khoa 외국변호사(베트남)



지평 베트남 호치민시티 사무소에는 어떻게 합류하게 되었는지?

저는 지평 베트남 사무소에 입사하기 전에는 호주 로펌인 Allens의 호치민시티 사무소에서 일했습니다. Allens에서 한승혁 외국변호사님과 함께 포스코, 금호, 효성, 아쿠르트 등 한국계 및 일본계 의뢰인들을 담당했었습니다. 2007년 지평 베트남 사무소가 설립된 후 한승혁 외국변호사님이 지평 베트남 사무소에 이직하셨고 그때의 인연으로 저도 지평 베트남 사무소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Allens에 있을 때 법률서비스를 제공했던 의뢰인들(포스코, 금호, 효성 등)도 지평 베트남 사무소의 새로운 고객이 되었고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지평 베트남 사무소를 이용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평 베트남 사무소에 합류하게 된 이유는 한국계 의뢰인들의 한국식 스타일에게 익숙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계 기업들은 한국 로펌 이용을 더 선호합니다. 저는 좋은 친구와 한국 고객들을 잃고 싶지 않았 습니다.

호치민시티 사무소에서 맡은 업무와 역할은?

사무소의 내부 절차에 따라 사무소장으로서 의뢰인들의 요구사항을 잘 알고 있는 정정태 변호사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의뢰인들에게 적합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다른 베트남변호사들과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의뢰인들에게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무소 내의 다른 베트남변호사들이 수행한 업무를 검토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베트남 국제중재 센터에서 진행된 베트남 국영기업과 현대비나신과의 분쟁중재사건으로, 저희가 현지 법무법인과 공동으로 피신청인 현대비나신을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분쟁을 해결했던 사건입니다. 동 사건에서 특히, 인맥이나 로비 등 다른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철저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자문을 제공하여 승소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 기억에 남습니다.

베트남 법률시장에서 지평의 위상은 어떠한지?

의뢰인들은 종종 본국계의 로펌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계 의뢰인들은 미국 로펌을, 호주계 의뢰인들은 호주 로펌을 찾습니다. 베트남에는 한국계 의뢰인들이 선택할 한국 로펌들이 많습니다. 지평은 베트남에 최초로 설립된 한국 로펌들 중 하나입니다. 우리 의뢰인들 중의 다수가 대기업들(포스코, 효성, 금호, 삼성, 롯데, 이마트, 신한

등)로 이들은 설립 초기부터 지평의 도움을 받으러 왔고 여전히 지평의 고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고객들의 지평에 대한 신뢰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평은 특히 부동산, 투자, 인수합병, 증권, 은행 등 분야에서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송 분야에도 뛰어난 현지 소송변호사들과 협업을 잘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지평에 더 많은 명성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평 베트남 사무소 설립 10주년을 맞이하는 기분이 어떠한지?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주 초창기부터 합류한 사람은 아니지만 (지평 베트남 사무소는 2007년에 설립되었고 저는 2008년에 입사하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지평 베트남 사무소가 현지 인력 및 조직 차원에서 안정화 되어온 것을 지켜봐 왔습니다. 10년 전에 봤던 사람을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력이 안정화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곳에서 저희를 만나 보실 수 있기를 희망하고, 훌륭한 한국인 동료들과 함께 지평 베트남 사무소의 계속 성장을 확신합니다.

03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

주소 및 연락처

Suite 3505, 35F, Keangnam Hanoi Landmark Tower, Plot E6, Cau Giay New Urban Area Me Tri Ward, Nam Tu Liem Dist., Hanoi, Vietnam
 Tel. +84-24-6266-1901
 Fax. +84-24-6266-1903
 E-mail. hanoi@jipyong.com

Main Contacts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
 유동호 외국변호사(미국)
 E-mail. dhyoo@jipyong.com
 Tel. +84-24-6266-1901

본사 베트남팀
 김상준 변호사
 E-mail. sjkim@jipyong.com
 Tel. +82-2-6200-1715

설립일

2009. 1.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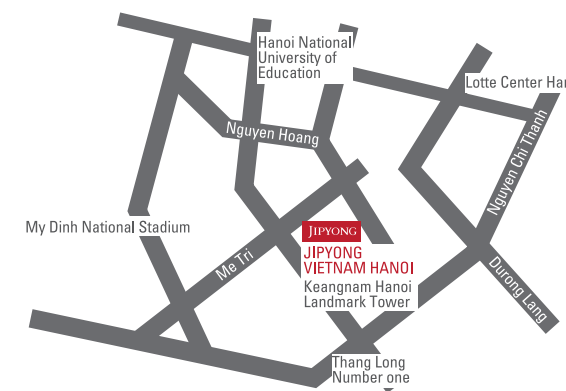


사무소 소개

법무법인 지평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는 한국변호사 1명, 미국변호사 1명, 베트남변호사 1명, 베트남 수습변호사 2명으로 구성되어 업무전문성과 지역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신뢰성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7년 베트남법인 본점(호치민 시티 소재)이 베트남 법무부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 설립되었고, 이후 호치민시티 사무소의 업무 성과를 바탕으로 2009년 1월 하노이 사무소가 설립되었으며 IFLR 1000 2013년판 Banking and capital markets 분야와 IFLR 1000 2016년 및 2017년판의 Banking and Finance 및 M&A 분야에서 현지

활동 중인 한국계 로펌 중 유일하게 “주목할 만한 (notable)” 로펌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한국 언론사 기자 및 한국 대기업 사내변호사로 오랜 현장 경험을 쌓아온 유동호 외국변호사(미국), 한국 대기업 사내변호사 및 한국 정부기관 베트남 법무전문가로 근무하며 경험을 쌓아온 최창민 한국변호사, 싱가포르계 명문 로펌인 Kelvin Chia 하노이 사무소에서 근무한 Huong Nguyen Thi 외국변호사(베트남)를 중심으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현지화된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동호 외국변호사(미국)

- 서강대학교 국문학/ 영문학 전공(최우수졸업)
- 한국일보 코리아타임스(The Korea Times) 기자 (국회, 통일부, 국방부 출입기자)
-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Hastings College of the Law (J.D.)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LG전자 해외법무팀 변호사
- KOTRA 하노이무역관 법률고문
- 법무법인 지평 시니어 외국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장

최창민 변호사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 GS칼텍스, 현대기아자동차 사내변호사
- KOICA 베트남 사무소 법무전문가
- 법무법인 지평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 변호사

NGUYEN Thi Huong 외국변호사(베트남)

- 베트남 University of Language and International Studies(영문학) 졸업
- 베트남 Hanoi Law University (LL.B.)
- 베트남 Vietnam National University of Hanoi (LL.M.)
- Indochina Law-Investment and Finance Consultancy Company
- InvestConsult Legal Services, a law firm and member of InvestConsult Group, Legal Trainee 및 베트남변호사
- Kelvin Chia Partnership 외국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 외국변호사

Nguyen Ha Ly 외국수습변호사(베트남)

- 베트남 Hanoi Law University (LLB.)
- 베트남 Judicial Academy of Vietnam-Ministry of Justice (Lawyer Training Course)
- Vietnam International Law Firm Intern
- 법무법인 지평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 외국수습변호사

Dao Tien Thinh 외국수습변호사(베트남)

- 베트남 Hanoi Law University (LLB.)
- 베트남 Judicial Academy of Vietnam-Ministry of Justice (Lawyer Training Course)
-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Industrial Safety Company Limited (In-house counsel)
- 법무법인 지평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 외국수습변호사

본사 베트남팀 변호사

양영태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제24기 수료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수석파트너, Managing Partner
-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 미국 Columbia Law School LL.M.(법학석사)
- 미국 뉴욕주 변호사(2007년)
- 미국 White & Case LLP 뉴욕사무소 International Lawyer 근무
- IFLR, Leading Lawyer 선정(2012-2017년)
-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김상준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졸업(법사회학)
- 사법연수원 제25기 수료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School of Law LL.M.(법학석사)
-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한승혁 외국변호사(호주)

- Bond University, 법학사
- 고려대학교, 법학석사(최우수졸업, 총장상 수상)
- 호주 빅토리아주 변호사(Solicitor & Barrister)
- Freehills 국제법률회사 소속변호사
- Allens Arthur Robinson 국제법률회사 선임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시니어 외국변호사



강울리 변호사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외교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제27기 수료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석사과정 졸업(통상법무학)
- 미국 Harvard Law School LL.M.(법학석사)
- IFLR, Leading Lawyer 선정(2012년, 2017년)
-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김관수 변호사

- 연세대학교 기계전자공학부 졸업
- SK텔레콤 상품개발팀
- 한국투자신탁운용 실물자산운용본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 CFA, 투자자산운용사 자격 취득
-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주요 업무 분야

종합 법률서비스 제공, 소송, M&A, 금융·증권, 해외투자, 건설·부동산 등

주요 실적

(주)대상을 대리하여 하노이 소재 현지 식품회사 인수(DUC VIET) 건

대상그룹을 대리하여 베트남의 대표적인 육가공(신선소세지) 가공업체인 득비엣(DUC VIET FOOD)의 지분인수를 성공적으로 자문했습니다. 한국기업 최초로 현지 육가공 산업에 진출한 사례일 뿐 아니라 대상그룹이 육류 및 육가공품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로 이해되어 언론 및 업계의 조명을 받았 습니다. 본 건의 성공을 계기로 대상그룹은 기존에

진출한 조미료, 전분당 시장에 이어 냉장식품과 냉 동식품으로까지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일본계 니혼햄과 신슈햄 등과 베트남 시장에서 경합을 벌이 고 있는 대상그룹이 베트남 내 최고의 품질과 맛을 자랑하는 고가 브랜드 가공업체인 득비엣을 인수함 으로써 식품 분야에서도 한류 열풍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이테크 분야 투자 자문

한화테크윈을 대리하여 한국기업으로는 최초로 베 트남 정부로부터 하이테크 분야 투자에 대한 인가를 받고 투자등록증을 공식적으로 발급 받음. 베트남에 서도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하이테크 분야에서 의 대규모 투자 유치이기에 중앙정부 관련 부처 및 현지 언론매체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음

합작드라마 제작 투자 자문

CJ E&M을 대리하여 베트남 국영 방송사 VTV와 공 동으로 한베 최초 합작드라마 '오늘도 청춘(Forever Young, 36부작)' 제작 투자를 자문하였음. 베트남 채널 중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는 프라임 시간 대인 수요일 목요일 밤 8시 30분에 편성되어 성황 리에 방영되었으며 시즌 1의 흥행에 힘입어 시즌 2 도 제작됨

삼성그룹 현지법인 자문

베트남 북부 지역에 진출한 삼성그룹 현지법인(삼성 엔지니어링, 삼성웰스토리, 삼성전기, 삼성SDS, 호텔신라)의 일반 운영 자문을 제공

- 대우건설을 대리하여 현지 건설법인 설립 자문
- 호텔신라를 대리하여 현지법인 설립 자문
- 웰스토리를 대리하여 현지 급식법인 설립 자문
- HS Ad를 대리하여 현지 광고법인 설립 자문
- 에릭슨엘지를 대리하여 현지 합작법인(VKX) 지분인수 자문
- 한국투자파트너스 대리하여 현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업체 신주인수 자문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의 강점

지평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는 2009년 설립된 이후 베트남 현지에 진출하는 유수의 기업 및 금융기관을 위해 투자 자문 및 운영 자문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 다. 2007년 설립된 호치민시티 사무소의 축적된 경 험과 노하우 뿐만 아니라 서울 본사 및 다른 8개 지 역 해외사무소와의 협력을 통해 하노이 진출 로펌 중 가장 넓은 고객 저변을 확보하고 가장 다양한 업 무를 수행해 왔으며, 독보적인 전문성과 현장성 있 는 밀착 자문을 통해 고객이 찾고 신뢰하는 최고의 로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장 유동호 외국변호사(미국)



언제 하노이 사무소에 부임했는지?

2013년 9월 초에 부임했습니다.

하노이 사무소의 특징과 강점은?

베트남의 본사(호치민시 사무소)의 지점인 하노이 사무소의 경우, 하노이 상주 인력(한국인 변호사 2명, 베트남변호사 3명)뿐 아니라 지평 베트남이 10년간 본사와 다른 해외사무소와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현장성 있는 자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베트남에 진출한 다른 로펌들과는 차별화됩니다.

당해 지역 경제와 한국기업 진출 현황 및 전망은 어떠한지?

제가 하노이 사무소에 합류한 2013년까지도 수도권 하노이는 경제수도인 호치민에 비해 경제성장이 더디고 인프라도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회 분위기도 경직되었다는 다소 부정적 평가가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다양한 복합쇼핑 센터나 지상철·지하철 등 부동산개발 프로젝트의 활성화로 도시 인프라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은행, 카드회사, 증권사 등의 연이은 투자에 따라 금융거래 인프라도 조성되고 투자환경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투자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한국 및 외국인투자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노이 사무소 전망은?

저희 사무소의 베트남변호사님들과의 오랜 호흡으로 업무처리와 고객대응은 어느 경쟁로펌보다 신속하고 정확하다고 자부합니다. 최근 최창민 변호사님의 합류로 하노이 사무소의 지속적 성장이 기대됩니다.



그동안 해외에서 일하면서 기억에 남거나 보람 있었던 일들은?

'지평은 다르다'라는 고객의 격려와 칭찬은 업무로 쌓였던 스트레스를 녹여줍니다. 이런 소소한 기쁨이 해외생활에 있어 큰 활력소가 됩니다.

현재 업무와 생활은 어떠한지?

하노이 생활이 5년 차에 접어들면서 이전 한국보다 하노이가 더 익숙합니다. 최근 하노이의 생활 인프라도 눈에 띄게 발전했고, 거주 한인 숫자도 5~6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대부분의 고객이나 개인적으로 교류하는 분들도 한국인이다 보니, 30분 이상 떨어진 시내로 나가서야 '내가 베트남에 있구나'라고 비로소 느낍니다.

지평 해외진출 10주년을 맞은 소회는?

지평 해외사업의 10년 중 4년을 같이 했다는 것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지난 10년보다 다가올 10년이 더 설레고 기대됩니다. 더욱더 지평의 발전과 비상, 그 중심에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지 변호사 인터뷰

NGUYEN Thi Huong 외국변호사(베트남)



지평과 같은 외국계 로펌에서 일하는 것이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은 무엇인지?

지평과 같은 외국계 로펌에서 일하다 보면, 다양한 법률 이슈에 걸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커리어에서 아주 값진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독립적으로 일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 하루 성장할 수 있으며 또한 그래야만 하기도 합니다. 다만, 가끔은 언어의 차이 때문에 업무에 관하여 내부와 고객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베트남 법률시장에서 지평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베트남 진출 10년차를 맞은 지평은 다른 한국계 로펌들에 비하여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의 요구와 베트남의 법적 환경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있는 사무소장과 직원들 사이의 안정적인 팀워크 역시 지평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규모 인력이 소속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 명 한 명의 직원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평의 해외진출 10주년을 맞은 소감은?

지평의 해외진출에서 작은 역할을 맡았다는 점이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동안 지평의 해외사무소들은 안정적이고 발전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베트남 법률시장의 경쟁은 보다 많은 외국계 로펌의 진출로 인하여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으므로, 저희 역시 보다 더 전문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변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고객들이 저희의 자문을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베트남 시장에서의 지평의 성과도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04

캄보디아 프놈펜 사무소

주소 및 연락처

9F, Phnom Penh Tower, #445
 Monivong Blvd. (St.93/232), Sangkat Boeung Pralit
 Khan 7 Makara, Phnom Penh, Cambodia
 Tel. +855-23-964-022, +82-2-6200-1725
 Fax. +855-23-964-033
 E-mail. cambodia@jipyong.com

Main Contacts

캄보디아 프놈펜 사무소

반기일 외국변호사(뉴질랜드)
 E-mail. kiban@jipyong.com
 Tel. +855-23-964-022, +82-2-6200-1725

본사 캄보디아팀

이행규 변호사
 E-mail. hglee@jipyong.com
 Tel. +82-2-6200-1744

설립일

2009. 3. 1.



사무소 소개

법무법인 지평 캄보디아 프놈펜 사무소는 캄보디아 부동산시장이 급성장한 2008~2009년 부동산개발 및 PF 자문을 시작으로 캄보디아 자본시장(IPO) 관련 자문, 한화 및 현대로지스틱스 등의 합작 진출, 예금보험공사의 저축은행 부실자산 회수 자문과 최근 각광받고 있는 금융시장 진출 자문까지 다양한 업무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캄보디아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사무소의 전문성은 현지에서도 인정을 받아, 중국, 일본, 태국 및 말레이

시아 등 비한국계 기업은 물론 캄보디아기업 및 캄보디아 정부를 위한 자문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법률과 실무 간에 상당한 괴리가 있는데 실무 관행의 중요도가 비교적 높은 나라입니다. 캄보디아 사무소는 지난 9년간 쌓아 온 압도적인 전문성과 현지 실무경험 및 대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고객에 적합한 가장 실효적인 자문을 신속하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략적 제휴 로컬 로펌 - 캄보디아 대관 네트워크 확대 및 큰 규모 거래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캄보디아 최대 local law firm인 HBS Law와 유기적인 업무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반기일
외국변호사(뉴질랜드)

- 뉴질랜드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법학과 졸업
- 뉴질랜드 College of Law New Zealand, Professional Legal Training
- 호주 Sydney Law School 법학석사(LL.M.)
- 뉴질랜드 변호사(2009년)
- 법무법인 지평 캄보디아 프놈펜 · 라오스 비엔티안 사무소장
-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 법무법인 지평 시니어 외국변호사

Somala Chea
외국변호사(캄보디아)

- 캄보디아 Royal University of Law and Economics 법학석사
- 캄보디아 National University of Management 경영학석사(MBA)
- 캄보디아 Royal Academy of Judges and Prosecutors 연수원 수료
- 캄보디아 Mekong Law Group 변호사
- 캄보디아증권위원회(SECC) 등록 변호사
- CSL & Associates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캄보디아 프놈펜 사무소 외국변호사



양영태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제24기 수료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수석파트너, Managing Partner
-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 미국 Columbia Law School LL.M.(법학석사)
- 미국 뉴욕주 변호사(2007년)
- 미국 White & Case LLP 뉴욕사무소 International Lawyer 근무
- IFLR, Leading Lawyer 선정(2012-2017년)
-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김상준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졸업(법사회학)
- 사법연수원 제25기 수료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School of Law LL.M.(법학석사)
-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주요 업무 분야

M&A, Joint Venture, 건설 · 부동산개발, 금융기관 진출 및 인수, IPO 및 자본시장, 인프라 · 에너지 · 자원 투자 등

주요 실적

캄보디아 증권거래소 제1호 상장기업인 Phnom Penh Water Supplies Authority (PPWSA)의 IPO

캄보디아 사무소는 캄보디아 제1호 종합증권회사인 유안타증권 캄보디아(구 동양종합금융증권 캄보디아)가 주관한 캄보디아 국영기업 PPWSA의 캄보디아증권거래소 IPO를 자문한 바 있습니다.

PPWSA의 IPO는 캄보디아 증권거래소가 설립된 이래 최초의 IPO 건으로 캄보디아 증권거래법과 상장규정이 캄보디아에서 처음으로 실제 적용된 사례입니다. 지평 캄보디아 사무소는 PPWSA에 대한 실사와 Disclosure Document(한국법상 유가증권신고서에 해당) 작성에서 Underwriting Agreement

(인수계약) 체결까지 포괄적인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PPWSA의 IPO는 그 누구도 경험이 없는 캄보디아의 첫 IPO였다는 점에서 업무 진행 과정에 애로사항이 매우 많았는데, 현지 감독당국과의 긴 협의 과정 및 지평 국내 자본시장팀과의 유기적인 협업 등을 통해 IPO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습니다. 본 사례는 저희가 한국 로펌으로서 최초로 외국의 국영기업을 자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데에 필요한 자문을 제공한 것으로서 한국 로펌의 해외진출에 있어 쾌거를 이룬 것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태국 공기업의 캄보디아 M&A 관련 자문

태국 공기업을 위한 캄보디아 석유회사에 대한 법률 실사, 주식양수도계약 검토 등 캄보디아 M&A 관련 제반 업무를 자문한 사례이며, 캄보디아 M&A 부문에 있어 한국기업 뿐 아니라 중국, 일본, 태국, 베트남 등 외국기업들도 자문 제공

한화 무역부문의 캄보디아 합작법인 설립 자문

한화 무역부문을 대리하여 캄보디아의 쌀 수출 전문 업체인 Amru Rice와의 Joint Venture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한 사례로, 합작계약 체결부터 캄보디아 합작법인 설립에 쌀 유통업에 필요한 현지 인 · 허가 취득 업무까지 현지에서 영업을 개시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자문을 제공

- 현대로지스틱스의 캄보디아 물류사업 합작법인 설립 자문
- 포스코건설의 주상복합아파트 등 캄보디아 부동산개발 자문
- GS건설의 캄보디아 부동산개발 및 매각 자문
- BNK캐피탈의 캄보디아중앙은행 Microfinance Institution 인가 취득 자문
- 캄보디아증권거래소(CSX) 제1호 상장기업인 프놈펜수도청(PPWSA) IPO 관련 법률자문
- 캄보디아증권거래소(CSX) 제3호 상장기업인 프놈펜항만공사(PPAP) IPO 관련 법률자문
- 캄보디아 재경부 및 증권거래위원회(SECC)를 위한 캄보디아 증권시장 발전 연구용역
- 대우인태내셔널의 캄보디아 식량자원개발 지분투자 자문

예금보험공사를 대리하여 국내 저축은행 계열 파산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캄보디아 부동산 매각 관련 자문

예금보험공사의 관리를 받고 있는 부산저축은행과 토마토저축은행 계열 파산재단이 보유한 다수의 캄보디아 프놈펜 소재 부동산을 매각하여 부실 저축은행의 대출채권을 국내로 회수한 사례로, 이 과정에서 법률자문은 물론 매각공고와 매수자 물색, 협상 등의 업무까지 포괄적인 매각 관련 자문을 수행

우리은행의 캄보디아 Microfinance Institution 인수 자문

우리은행을 대리하여 캄보디아 Microfinance Institution(소액대출금융기관)인 Malis를 인수하는 데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제공. Malis는 현재 우리파이낸스캄보디아로 상호명이 변경되어, 지점 개설 등을 통해 현지 영업망을 확장하고 있음

캄보디아 프놈펜 사무소의 강점

지평 캄보디아 프놈펜 사무소는 본사의 유관 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난 9년간 캄보디아에서 이루어진 거의 모든 국내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캄보디아 M&A, Joint Venture, 부동산개발 및 매매, 금융기관 진출 업무에 있어서 국내 그 어떠한 법무법인보다도 많은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캄보디아 IPO 및 자본시장 업무에 있어서는 저희 주요 실적에서 보실 수 있는 바와 같이 캄보디아 내 독보적인 업무 경험 및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 사무소장 반기일 외국변호사(뉴질랜드)



캄보디아 프놈펜 사무소의 특징과 강점은?

캄보디아 진출 및 투자 관련 업무에 있어 국내 그 어떠한 법무법인보다도 많은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수행해온 캄보디아 법률에 대한 연구, 현지 networking 및 현지 IPO와 M&A 수행 경험들로 인하여 한국 로펌으로서 캄보디아 내 독보적인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 사무소가 주로 하는 업무는?

캄보디아기업 M&A, 합작투자, 현지 사업법인 설립 및 인·허가 취득 업무, 부동산개발(매각, 매수 자문 포함), 현지 IPO(pre-IPO 자문 포함) 및 자본시장 관련 업무를 주로 하는데, 최근 들어 금융기관 진출 및 인수 자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 사무소가 수행한 업무들 중 대표적인 것을 소개하면?

캄보디아 증권시장은 현재 성장 초기 단계에 있고 캄보디아 증권거래소에 현재 상장되어 있는 기업은 총 5개인데, 그 중 두 기업(프놈펜수도청 및 프놈펜 항만공사)의 IPO 관련 주관사 측 법률자문을 저희 지평 캄보디아 사무소가 수행하였습니다.

캄보디아 경제와 한국기업 진출 현황 및 전망은 어떠한지?

캄보디아는 아직까지 6~7%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데, 현지에서는 2018년에 있을 총선 결과가 캄보디아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기업들의 경우 2008~2009년에 비해 부동산 투자는 줄었는데, 금융업, 유통·물류업, 서비스업 등의 분야에서는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캄보디아에서 일하면서 기억에 남거나 보람 있었던 일들은?

한국거래소, KMAC 등과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캄보디아 재경부 및 증권거래위원회를 위한 캄보디아 증권시장 발전 연구용역을 최근에 마쳤습니다. 그 간 축적한 캄보디아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캄보디아 경제개발에 필요한 증권시장의 틀을 구축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현재 업무와 생활은 어떠한지?

현재는 서울-프놈펜을 자주 오가며 캄보디아 금융기관 매각, 인수 자문과 캄보디아에서의 IPO를 염두에 둔 pre-IPO 투자 관련 자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쫓겨 공항 라운지나 기내, 호텔 등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가족들과 떨어져 보내야 하는 시간이 많아 어려운 점도 있지만,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하여 균형있는 생활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평 해외진출 10주년을 맞은 소회는?

저는 지평의 해외진출이 본격화 되던 시점에 동남아 지역 전문가가 되기 위하여 지평에 입사했습니다. 지평 해외진출 10주년이란 지평에서의 제 성장과정을 돌이켜 보고, 제 목표와 계획을 재정비하는 시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이룬 성과가 적지 않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더 많다고 생각하는 바, 저희 해외사업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유안타증권 캄보디아 한경태 법인장



유안타증권 캄보디아는 캄보디아 제1호 종합증권회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캄보디아에 진출하게 된 계기는?

2006년 말 동양그룹이 증권업을 중심으로 해외사업을 확장하면서, 캄보디아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2011년 캄보디아에 증권거래소가 설립되면서 캄보디아 재경부의 금융자문사로 선정되었고 캄보디아 제1호 증권사 라이선스를 취득한 후 캄보디아 제1호 IPO를 단독으로 주관했습니다.

유안타증권 캄보디아가 현지에서 주관하신 프로젝트 중 특별히 의미 있는 프로젝트는?

아무래도 첫 번째 IPO가 가장 힘들고 의미있는 일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주식시장 설립 프로젝트로 볼 수 있을 만큼, 길고 힘든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만큼 배운 점도 많고 의미도 있었습니다. 지평의 반기일 외국변호사님과는 같이 밤샘 작업을 하면서 저희 회의실에서 침낭생활까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유안타증권 캄보디아는 캄보디아에서 영업 중인 많은 증권회사들 중 가장 많은 업무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지에서의 성공 비결 등 유안타증권 캄보디아가 타 증권회사들과 다른 점은?

캄보디아에 대한 경험이 유안타증권의 최대 장점입니다. 타 증권사들의 경우, 법인장이 2~3년 주기로 교체됩니다. 현지 사업 환경이 조금 힘들어지면 바로 사업 전략을 변경하는데, 결국 6개의 종합증권사 중, IPO나 M&A의 경험을 갖고 있는 곳은 사실상 2~3곳에 불과합니다. IPO와 M&A 분야에서 각각 2개 이상의 유의미한 딜을 경험한 곳은 저희가 거의 유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캄보디아와 같은 초기시장에서, 증권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릅니다. 결국, 소수의 핵심 인력을 중심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와 관리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 회사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인력에 대한 투자와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안타증권 캄보디아는 캄보디아 진출 이래 현재까지 8년 넘게 지평 캄보디아의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그 주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지평이 보유한 현지 경험과 지식 때문입니다. 8년 넘게 모든 주요 딜을 같이 진행해왔고 결과도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한 팀이라는 느낌입니다. 또한, 지평의 장점은 완벽하게 이중 언어가 가능하신 변호사분들이 계셔서, 한국-캄보디아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현지에 있는 외국계 회사들과의 딜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현지 영미계 PE firm에 최초의 CB투자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이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증권시장의 성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캄보디아 증권시장 성장 과정에서 한국과 캄보디아 교류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유안타증권 캄보디아의 역할 및 목표는?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의 작은 후진국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ASEAN 전체 시장의 한 부분이자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캄보디아는 크메르루즈(킬링필드)라는 역사적인 비극 때문에, 다른 주변국가에 비해 발전 정도가 수십 년 뒤쳐졌지만, 지역 경제의 통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캄보디아를 동남아시아 시장의 일부로 보고 접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유안타증권은 캄보디아에서 1등 증권사의 지위를 확보/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은 시장이지만, 캄보디아라는 한 국가에서 1등 증권사로 자리잡고 IB업무 이외에 투자유치, 자산 운용 업무로도 영역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05

라오스 비엔티안 사무소

주소 및 연락처

LLC Bldg., Nongbone Road, Saysetha Dist.
 Vientiane, Laos
 Tel. +856-21-261-391, +82-2-6200-1725
 E-mail. laos@jipyong.com

Main Contacts

라오스 비엔티안 사무소
 반기일 외국변호사(뉴질랜드)
 E-mail. kiban@jipyong.com
 Tel. +856-21-261-391, +82-2-6200-1725

본사 라오스팀
 이행규 변호사
 E-mail. hglee@jipyong.com
 Tel. +82-2-6200-1744

설립일

2009. 11. 3.



사무소 소개

법무법인 지평은 2009년 라오스 유수 로펌인 LLC와 제휴하여 라오스 법률시장에 진출하였습니다. 지평은 LLC 비엔티안 본사에 사무소를 두고, 한국기업의 다양한 라오스 투자 및 라오스기업의 한국 자본시장 진출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정부기관을 대리하여 여러 라오스 법률 연구용역을 수행하였는데, 특히 라오스 정

부를 위한 라오스 증권법 제정 자문 및 법제처가 발주한 라오스 외국인투자법제 연구용역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지평은 LLC를 비롯하여 다수의 현지 유력한 로컬 로펌들과 제휴하고 있고 라오스 내 주요 감독당국과의 네트워크도 보유하고 있어, 고객의 니즈에 부응하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양영태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제24기 수료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수석파트너, Managing Partner
-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 미국 Columbia Law School LL.M.(법학석사)
- 미국 뉴욕주 변호사(2007년)
- 미국 White & Case LLP 뉴욕사무소 International Lawyer 근무
- IFLR, Leading Lawyer 선정(2012-2017년)
-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김상준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졸업(법사회학)
- 사법연수원 제25기 수료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School of Law LL.M.(법학석사)
-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반기일 외국변호사(뉴질랜드)

- 뉴질랜드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법학과 졸업
- 뉴질랜드 College of Law New Zealand, Professional Legal Training
- 호주 Sydney Law School 법학석사(LL.M.)
- 뉴질랜드 변호사(2009년)
- 법무법인 지평 캄보디아 프놈펜 · 라오스 비엔티안 사무소장
-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 법무법인 지평 시니어 외국변호사



주요 업무 분야

M&A, Joint Venture, 건설 · 부동산개발, 금융기관 진출 및 인수, IPO 및 자본시장, 인프라 · 에너지 · 자원 투자 등

주요 실적

KB캐피탈 및 KB국민카드를 대리하여 라오스 리스회사 합작투자 자문

KB캐피탈 및 KB국민카드를 대리하여 라오스 리스
업 진출에 대한 합작투자계약 자문과 라오스 리스회
사 설립 및 인 · 허가 취득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

코라오홀딩스를 대리하여 GDR 발행 및 싱가포르거래소 상장 자문

코라오홀딩스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 자
문에 이어 1억 5천만불 규모의 GDR 발행 및 싱가포
르거래소 상장 관련 자문을 제공. 코라오홀딩스의
GDR 발행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외국기업이 GDR
을 발행한 최초 사례

- 한국거래소를 대리하여 라오스증권거래소(LSX) 설립 관련 지분투자 및 합작자문
- 인도차이나뱅크를 대리하여 합작계약 및 운영 관련 자문
- 코라오홀딩스를 대리하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 자문
- 코라오홀딩스를 대리하여 IFC 보증부 사모사채 발행 관련 자문
- 인도차이나뱅크를 대리하여 매출채권 유동화 및 사모사채 발행 관련 자문
- 광산회사 실사 및 투자 관련 자문
- 라오스 투자 · 비즈니스 가이드북 발간(법무부)
- 라오스 외국인투자법제 연구용역보고서 발간(법제처)
- 라오스 투자 법률가이드 발간(주 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

대한민국 법무부 및 라오스 정부를 위하여 라오스 증권법 제정 자문

라오스 정부를 위하여 현지 법률 제정 관련 자문을
제공한 특별한 사례로 라오스 증권법 제정 자문의
연장선에서 라오스 내 자본시장 관련 인력 양성 방
안에 대한 자문과 라오스증권위원회의 국제증권감
독기구(IOSCO) 가입 지원 자문까지도 수행. 이는 한
국의 자본시장 성장 경험을 라오스와 같은 개발도상
국에 전수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데, 한국
과 라오스 간의 자본시장 교류에 일조한 공익적 목
적도 있음

라오스 비엔티안 사무소의 강점

지평 라오스 비엔티안 사무소는 2009년 라오스 비
엔티안에 현지 사무소를 설치한 이래 한국기업의
다양한 라오스 투자 및 라오스기업의 한국 자본시장
진출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외 정부기관을 대리하여 여러 가지 라오스 법
률 연구용역을 수행하였는데, 특히 라오스 정부를
위한 라오스 증권법 제정 자문 및 법제처가 발주한
라오스 외국인투자법제 연구용역도 수행한 바 있습
니다. 그 결과 한국 로펌 중 라오스 진출 관련 법률자
문 실적이 가장 많으며, 독보적인 라오스 법률전문
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06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사무소

주소 및 연락처

Gedung Artha Graha 23F, Jalan Jenderal Sudirman Kav. 52-53, Lot 25, Jakarta Selatan 12190, Indonesia
 Tel. +62-21-515-0622
 Fax. +62-21-515-0699
 E-mail. indonesia@jipyong.com

Main Contacts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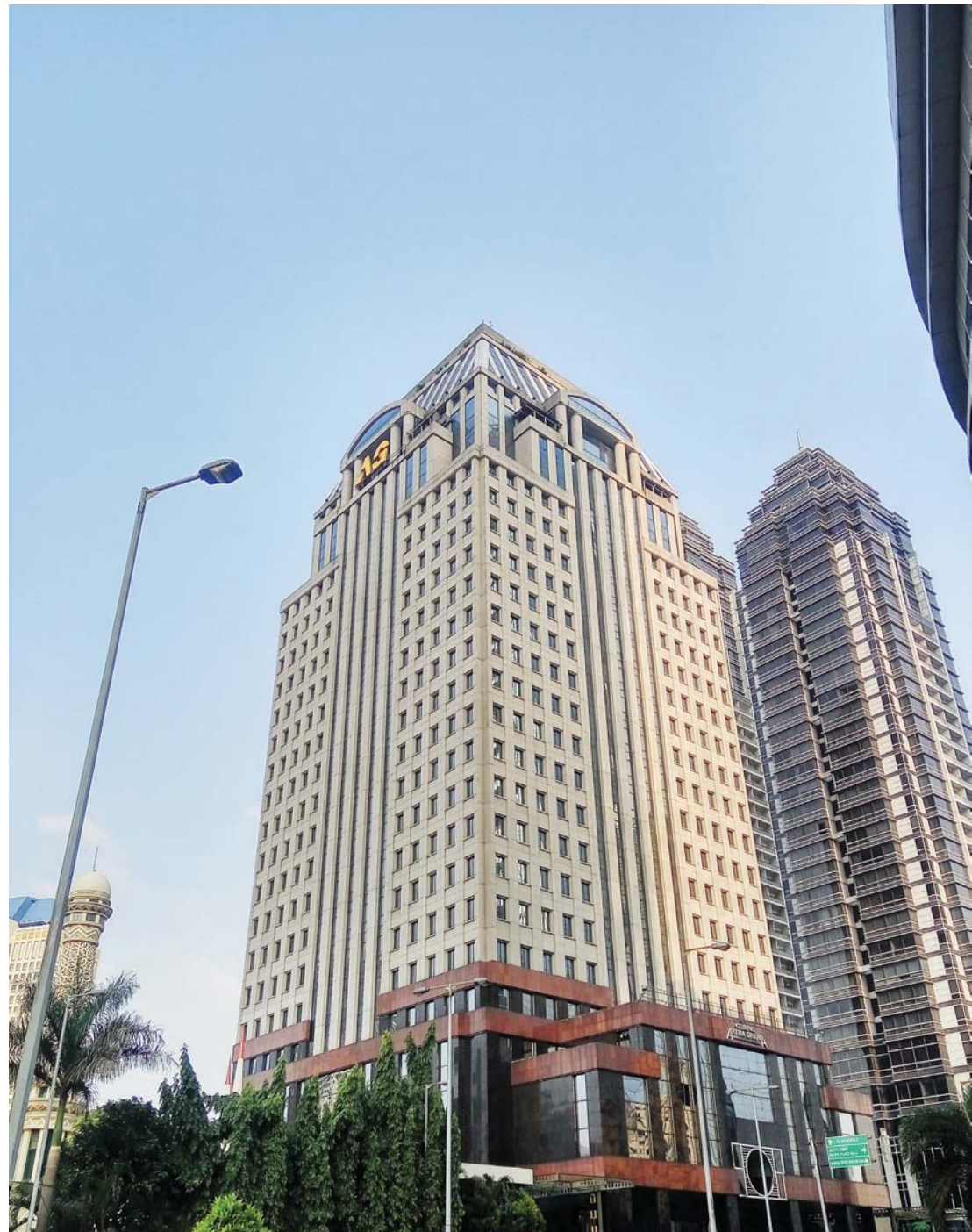
권용숙 변호사
 E-mail. yskwon@jipyong.com
 Tel. +62-21-515-0622

본사 인도네시아팀

한승혁 외국변호사(호주)
 E-mail. shhan@jipyong.com
 Tel. +82-2-6200-1771

설립일

2012. 10. 10.



사무소 소개

법무법인 지평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사무소는 2012년 설립되어 현지 로펌 AHP 및 NSMP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현지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지평 인도네시아 사무소는 2015년부터 인도네시아 로펌 Arruanpitu & Partners와 전략적/배타적 제휴 관계를 맺고, M&A, 금융 및 해외업무와 인도네시아 업무에 정통한 한국변호사 2명 및 인도네시아변호사 5명이 협력하여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평 인도네시아 사무소에는 본사에서 M&A/Coporate 분야 전문성을 쌓은 권용숙 변호사가 2011년 인도네시아에 부임한 이래 현재까지 만 6년 동안 사무소장으로 근무 중입니다. 인도네시아 변호사 Diana Arsi Yanti는 인도네시아 로펌 Makarim & Tiara 및 증권회사인 PT Danareksa에서 수년간 근무하여 자원개발 및 금융 프로젝트 등 다수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무소는 본사의 변호사들과 인도네시아에 파견된 한국변호사 및

현지 인도네시아변호사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M&A·합작법인 설립, 에너지·자원 투자, 건설·부동산·인프라·플랜트 개발, 금융산업, 외국인 투자 관련 자문 등 인도네시아에서의 한국기업의 성공적 진출을 위해 cost effective하고 신속·정확하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권용숙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제33기 수료
- 미국 Boston University Law School LL.M. (법학석사)
-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사무소장

최유진 변호사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Washington College of Law 교환학생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 대우증권 법무실
- 법무법인 지평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사무소 변호사

Dedy Arruanpitu 외국변호사(인도네시아)

- Faculty of Law, Hasanuddin University (Unhas), Makassar, South Sulawesi. Degree obtain: Sarjana Hukum (S.H.), equivalent to Bachelor of Laws
- Post-Graduate, Faculty of Law, University of Pancasila, Jakarta. Degree obtain: Magister Hukum (M.H.), equivalent to Master of Laws
- Senior Partner, Law Firm Kanon & Arruanpitu, Jakarta
- Partner, Law Firm Arruanpitu & Associates, Jakarta

Diana A. Kartohadiprodjo 외국변호사(인도네시아)

- Bachelor Degree (S.H.), University of Indonesia
- Master Degree (M.H.), University of Indonesia
- Associate, Soebagjo, Roosdiono, Jatim & Djarot (Law Firm)
- Legal Manager, PT Danareksa (Persero) (Investment Banking)
- Partner, Soebagjo, Jatim, Djarot (Law Firm)
- Senior Associate, Makarim & Taira S. (Law Firm)

Calma Radella Taher 외국수습변호사(인도네시아)

- Bachelor of Economy, Majoring in Management, Faculty of Economic, Parahyangan Catholic University (UNPAR)
- Bachelor of Law, Majoring in Civil and Economic Law, Faculty Of Law, Padjajaran University (UNPAD)
- Associate, Widyawan and Partners Law Firm affiliate with Linklaters
- Associate, Hiswara Bunjamin Tandjung Law Firm affiliate with Herbert Smith and Freehills

Dicka Syahputra 외국수습변호사(인도네시아)

- Universitas Pembangunan Nasional 'Veteran', Jakarta
- Gajendra Adhi Sakti Group, Jakarta (internship)
- Indrawan, Heisky & Partners, Jakarta. Law Firm
- Hiswara Bunjamin & Tandjung, Jakarta. Law Firm

Gisela Semen 외국수습변호사(인도네시아)

- Bachelor of Law, Atma Jaya University
- Magister of Law, Atma Jaya University
- Junior Legal Corporate, PT Permata Medialand (Kompas Gramedia Group)
- Associate, Irianto Andreas & Partner Lawfirm



본사 인도네시아팀 변호사

양영태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제24기 수료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수석파트너, Managing Partner
-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이태현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제36기 수료
- 미국 Fordham University LL.M.(법학석사)
-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김혜라 변호사

-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제33기 수료
-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L.M. (법학석사)
-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이민희 변호사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호주 Griffith University (B.A. in International Business)
- 중국 수도경제무역대학 연수
- STX Panocean(주) 해외영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한승혁 외국변호사(호주)

- Bond University, 법학사
- 고려대학교, 법학석사(최우수졸업, 총장상 수상)
- 호주 빅토리아주 변호사(Solicitor & Barrister)
- Freehills 국제법률회사 소속변호사
- Allens Arthur Robinson 국제법률회사 선임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시니어 외국변호사

이상희 외국변호사(미국)

- 한동대학교 법학부 졸업
- 미국 Boston University Law School LL.M. (법학석사)
- 미국 뉴욕주 변호사(2005년)
- 삼성전자(주) 반도체총괄 System LSI 사업부 근무(기획)
- 법무법인 지평 시니어 외국변호사

주요 업무 분야

M&A · 합작법인 설립, 에너지 · 자원 투자, 건설 · 부동산 · 인프라 · 플랜트 개발, 금융산업, 유통산업, 법인 설립 및 운영, 외국인투자 관련 자문 등

주요 실적

신한카드를 대리하여 인도네시아 멀티파이낸스 회사 인수 자문

신한카드가 인도네시아 Salim 그룹의 멀티파이낸스 운영법인인 스와달마 파이낸스 지분 중 과반수를 인수하기 위한 주식양수도계약에 대한 자문 수행. 해당 딜은 한국 전업 신용카드사 최초의 인도네시아 진출로서 큰 의미를 가짐

PT BUVA 그룹을 대리하여 투자 유치 자문

인도네시아 최고급 리조트인 Alila 체인 리조트의 운영사이자 인도네시아 상장법인인 PT Bukit Uluwatu Villa Tbk를 대리하여 대명코퍼레이션과 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 등으로부터 250억원의 투자 유치 관련 주식 매매 및 신주인수 계약 자문을 성공적으로 제공

- 하나캐피탈을 대리하여 인도네시아 Multi-Finance 합작법인 설립 자문
- CJ 푸드빌을 대리하여 레스토랑 운영법인 설립 자문
- P사를 대리하여 대형 상업용 건물 건설 프로젝트 관련 법률실사 수행 등 법률자문
- GS Retail을 대리하여 인도네시아 유통업 진출 관련 자문
- 한전산업개발 컨소시엄(남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을 대리하여 팜펠렛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 투자 및 사업준비 업무 자문
- LG상사 인도네시아 광산법인(MPP) 운영 관련 법률자문
- LG상사 인도네시아 조림법인 매각 관련 법률자문
- 예금보험공사를 대리하여 발리 리조트 프로젝트 등 다수 민사소송 대리
- S사를 대리하여 인도네시아 석탄광산투자 관련 민사소송 대리

BC카드를 대리하여 인도네시아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합작법인 설립 자문

BC카드가 인도네시아에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신용카드 결제 프로세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 제공

JC케미칼을 대리하여 인도네시아 팜 법인(PT Niagamas Gemilang) 인수 자문

인도네시아 팜 법인의 싱가포르 소재 모회사가 발행한 대주주 지분을 JC케미칼이 인수하는 프로젝트로, 인도네시아 팜 법인과 싱가포르 모회사 각각에 대한 실사와 주식양수도 거래, 주주간 계약 등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한국적 관점을 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적으로 자문 제공

주요 대기업 및 금융기관 자문

현재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다수의 한국계 대기업(삼성, LG, SK, 포스코, LG상사, CJ, GS, 롯데,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등) 및 금융기관(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신한카드,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에 일반 운영자문 및 프로젝트 자문 제공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사무소의 강점

지평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사무소는 정확한 법률자문서비스를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식으로 제공해 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본사 인도네시아팀의 주도 하에 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와 고객이 직접 지평 인도네시아 사무소와 협업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든 지평 인도네시아 사무소와 지평 본사 인도네시아팀이 협력하여 고객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로펌과 인도네시아 로펌 간의 협업을 통해 인도네시아 지역전문성을 극대화하고, 현지 로펌 보수의 합리적 책정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여 많은 한국 고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사무소장 인터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사무소장 권용숙 변호사



언제 인도네시아 사무소에 부임했는지?

2011년 10월 인도네시아에 부임한 이래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4년 초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지평 본사에서 6년 반 동안 M&A, 상장, 공정거래 등의 업무 경험을 쌓았고, 미국 Boston University LL.M. 유학을 마친 후 인도네시아로 발령받아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무소가 주로 하는 업무는?

한국의 로펌들이 제공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이곳에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진출자문(법인 설립, JV 형태 투자, M&A 등)부터 현지 법인들의 운영자문(노무, 공정거래, 회사법 관련 이슈 등)을 수행하며, 소송 업무도 40건 가까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무소가 수행한 업무들 중 대표적인 것을 소개하면?

한국계 로펌으로서 현지에서 처음으로 성공적으로 수행한 딜들로 이후 고객과의 관계 유지 및 확대에 기여한 딜들입니다. JC케미칼의 인도네시아 팜 법인 인수(2013년), CJ인도네시아 사료법인의 매단 소재 사료기업 자산인수(2013년), 신한카드의 인도네시아 살림그룹 소속 멀티파이낸스회사 인수(2015년) 등은 지평 인도네시아 사무소가 처음으로 수행한 각 분야의 대표적인 딜이었습니다. 그리

고, 2016년 신한금융투자 및 PT Bukit Uluwatu Villa Tbk(인도네시아 최고급 리조트인 Alila 체인 리조트의 운영사이자 인도네시아 상장법인)를 대리하여 대명코퍼레이션과 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 등으로부터 250억원 상당의 자금조달 및 투자약정을 성공적으로 자문하였는데, 이 역시 인도네시아 회사에 대한 한국 금융기관의 최초의 투자금융 사례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제와 한국기업 진출 현황 및 전망은?

최근 인도네시아는 통화 및 경상수지 안정과 조꼬위 정부의 개혁적 정책 추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국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한국기업들도 베트남과 함께 인도네시아를 주요 투자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투자환경은 아직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실제 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해외에서 일하면서 보람 있었던 일들은?

현지에서 진출한 한국기업 주재원들은 대부분 법무에 관한 경험이 부족하여 변호사와의 업무 진행상 어려운 점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초기 상호 이해 부족과 오해로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해외에서 함께 고생하고 있다는 동병상련으로 상호 이해도를 넓혀 가며 나중에 가서는 서로 두터운 신뢰관



계를 맺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지에서 진출한 기업들과 동반자적 관계에서 기업들의 해외진출 역사를 함께 써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재원분들이 저희 지평 덕분에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는 칭찬과 평가를 해주실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사무소장으로서의 포부는?

만 6년에 가까운 자카르타 주재 기간 중 고객들로부터 개인적으로 과분한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Asialaw로부터 앞으로 2016년 및 2017년 연달아 Leading Lawyer (M&A, Corp 분야)로 선정되는 영광도 얻었습니다. 앞으로 지평 인도네시아 사무소가 한국계 고객들로부터 압도적인 평가를 받아 현지 영미계 로펌을 능가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평 해외진출 10주년을 맞은 소회는?

해외진출 10주년을 맞아 10년 전부터 해외진출 계획을 수립한 지평 선배 변호사님들의 의지와 노고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형성한 해외 네트워크와 축적된 노하우를 결집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해외법률 이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기업 중 아직 저희 지평의 해외업무 역량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번 10주년 행사가 지평의 해외 역량을 잘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신한금융투자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한일현 이사



본인 소개 및 언제 인도네시아에 부임하였는지?

저는 현재 신한금융투자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PT. Shinhan Sekuritas Indonesia) 커미셔너 (Commissioner)로, 2015년 7월 인도네시아 증권사 인수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2016년 1월 인도네시아에 부임하였습니다.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풍부한 자원 및 인구를 바탕으로 무궁한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인도네시아 현지의 다양한 투자기회를 한국 내 기관 및 개인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인도네시아 현지기업의 자금조달 프로젝트(IPO, 증자, CB)를 한국의 기관투자자에게 소개/ 연결하는 IB업무와 인도네시아 현지 금융투자상품(펀드, 채권, REITs)을 한국의 HNW투자자에게 소개/ 연결하는 상품소싱 업무 외 인도네시아 현지 상장기업을 한국의 해외주식투자자들이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증개하는 해외주식중개 업무 등을 현지에서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업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거나 현지에서 영업할 때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은?

인도네시아는 다른 개발도상국과 마찬가지로 아직 법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정교하게 정비되어 있지 않는데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 '모호성'이 동남아 그 어떤 국가보다 특히 더 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글로벌 스탠다드상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합리적/ 이성적 판단에 근거할 때 문제가 없는 거래, 계약이라 할지라도 현지 관행 및 제반 법규를 매우 꼼꼼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용되는 법률상식과 관행들이 인도네시아에서는 적용하기 힘든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는 말이 상징하듯, 일반적인 호흡보다 더 긴 인내심을 가지고 '시간 싸움'을 해야 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사업시 법률문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유수의 현지 로펌이라 하더라도 사례가 풍부하고 반복적으로 수행해 온 전문분야가 아닐 경우 한국적인 관점에서 제기되는 법률적 이슈들을 충분히 커버해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풍부한 현지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적 맥락에서 이슈들을 해석, 분석, 조언해 줄 수 있는 로펌 및 변호사로부터의 자문은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평 인도네시아 사무소에 대해 평을 한다면?

Cross-border 프로젝트가 많은 업무 특성상, 그동안 많은 한국 로펌 및 현지 로펌들과 함께 일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평 인도네시아 사무소는 국내 대형 로펌 중 유일하게 현지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축적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과 '실전'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법률자문을 해 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GS리테일 주지용 부장



본인 소개 및 언제 인도네시아에 부임하였는지?

GS리테일 인도네시아 법인 개발담당 부장 주지용이며, 2014년 10월에 인도네시아에 부임하였습니다.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GS리테일 인도네시아 법인에서 GS수퍼마켓 신규 출점을 위한 점포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업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거나 현지에서 영업할 때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은?

한국기업이 인도네시아 진출시 유의할 점은 현지에 대한 판단을 몇 번의 시장조사만으로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출과 영업을 결정할 때 좀 더 면밀한 조사를 통한 진출이 필요합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과는 달리 명확한 기준으로 확정된 것이 없어 항상 모든 업무를 할 때마다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어도 3~4군데 중복 점검을 한 후에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현지의 특성상 시간을 두고 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기업은 매 협상마다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가 없습니다.

지평 인도네시아 사무소에 대해 평을 한다면?

지평과 현재 같이 협업을 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진출한 법무법인 중에 가장 현지 실정을 잘 알고 현지 법률 체계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기업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바 한국기업의 특성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시장과 한국기업 진출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의견은?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1970년대와 2010년대가 공존하고 있는 나라이므로 아직도 몇 십년간은 특정한 몇몇 분야를 제외하고는 성장성이 높은 나라입니다. 특정한 사업 분야를 제외하고는 한국기업의 진출에 긍정적인 의견입니다. 다만,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 시장조사를 통해 빠른 현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7

미얀마 양곤 사무소

주소 및 연락처

No. 140/A, Than Lwin Road, Bahan Township
Yangon, Myanmar
Tel. +95-1-510366
Fax. +95-1-526381
E-mail. myanmar@jipyong.com

Main Contacts

미얀마 양곤 사무소
장성 수석자문위원
E-mail. schang@jipyong.com
Tel. +95-94-2013-1641

본사 미얀마팀
정철 변호사
E-mail. cjeong@jipyong.com
Tel. +82-2-6200-1753

설립일

2012. 11. 27.



사무소 소개

법무법인 지평은 2012년 한국 로펌 중 최초로 미얀마 양곤에 사무소(Jipyong Myanmar Limited)를 설립하여 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한국회계사 및 자문위원을 파견하고 다수의 현지 변호사 4명과 회계사 2명을 채용하여 미얀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M&A, 금융, 자원·에너지, 부동산·인프라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평 본사 미얀마팀도 지평 미얀마 양곤 사무소와의 협업을 통하여 다수의 업무 실적을 축적해 왔습니다.

지평 미얀마 사무소는 지난 5년간 한국기업을 비롯하여, 일본, 태국, 싱가포르 등 기업에 각종 법률/조세 자문을 제공하며 다수의 실무경험을 축적하여 왔고, 이와 같은 실무경험과 다년간 구축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기획의 땅 미얀마에서 최고의 자문을 제공하는 로펌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장성 수석자문위원/ 사무소장

- 고려대학교 수학과 졸업
- ㈜유니와이드 미국법인 기획이사(산호세)
- ㈜옥성전자 상무이사
- 일본 Link-Up사 상무이사
- 일본 ㈜Office24 국제업무 고문역
- 법무법인 지평 수석자문위원
- 법무법인 지평 미얀마 양곤 사무소장

나민형 공인회계사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제36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회계사
- 런던정경대 국제개발관리 석사
- POSCO ELECTRICAL STEEL INDIA (인도, 푸네) 관리 부장
- 코라오홀딩스(라오스 비엔티안) 전략담당 이사
- 법무법인 지평 미얀마 양곤 사무소 공인회계사



고세훈 변호사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 삼성테크윈 경영지원팀
- 미국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Texas Instruments Korea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 법무법인 지평 미얀마 양곤 사무소 수석변호사

Maung Maung Aung 외국변호사(미얀마)

- 미얀마 University of Yangon (B.Sc.)
- 미얀마 University of Yangon (D.B.L.)
- 미얀마 Yangon Institute of Economics (M.B.A.)
- 미얀마 Yangon University of Distance Education (LL.B.)
- 미얀마 변호사(1988년)
- 법무법인 지평 미얀마 양곤 사무소 시니어 외국변호사

San San Yi 공인회계사(미얀마)

- 미얀마 University of Yangon (D.B.L.)
- 미얀마 Institute of Economic in Yangon (B.Com.(Q))
- Auditor, WIN THIN& Associates
- Audit Manager (Taxation, External & Financial Audit), WIN THIN& Associates
- Audit Partner (Taxation, Due Diligence, External & Financial Audit), WIN THIN& Associates
- 법무법인 지평 미얀마 양곤 사무소 시니어 공인회계사

오규창 외국변호사(미국)

-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경영학과 (B.A.)
- 미국 Washington Univ. in St. Louis 로스쿨 (J.D.)
- 미국 뉴욕주 변호사
- ㈜STX
- 삼성전자(㈜)
- 법무법인 지평 미얀마 양곤 사무소 외국변호사

Thant Zin Tun 외국변호사(미얀마)

- 미얀마 Mandalay University (LL.B.)
- 미얀마 University of Yangon (D.B.L.)
- Advocate & Pleader (H.G.P.)
- Higher grade pleader, Pioneer Law Firm
- 법무법인 지평 미얀마 양곤 사무소 외국변호사

Myat Myat Thet 공인회계사(미얀마)

- 미얀마 Yangon University of Economics (B.Com., 2004)
- 미얀마 Yangon University (D.B.L., 2006)
- CPA Apprentice, WIN THIN& Associates Audit Firm
- Audit Officer, Office of the Auditor General of the Union (OAGU)
- 법무법인 지평 미얀마 양곤 사무소 시니어 공인회계사

본사 미얀마팀 변호사 및 전문가

양영태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제24기 수료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수석파트너, Managing Partner
-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곽은비 변호사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정철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제31기 수료
-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Gould School of Law LL.M.(법학석사)
- 미국 뉴욕주 변호사(2010년)
- IFLR, Leading Lawyer 선정(2014-2017년)
-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임승혁 공인회계사/ 세무사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과정 졸업(경영학)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세법 연구과정 수료
- 제31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 안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eventhal School of Accounting (Master of Business Taxation)
- 'M&A 세법 실무' 저자
- 법무법인 지평 공인회계사



서준희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제39기 수료
-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School of Law LL.M.(법학석사)
-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이공형 전문위원

- 일본 아지야대학 국제관계학부 국제관계학과 졸업
- ㈜제일은행 동경지점 근무
- 중소기업은행 동경지점 근무
- 법무법인 지평 전문위원(일본 담당)

주요 업무 분야

M&A, 인프라 · 에너지 · 자원 투자, 건설 · 부동산개발, 금융회사 진출, 필라와경제특구 및 MIC 투자승인 취득, 회계 및 세무 자문, 조세 불복, 노동, IP, 소송 등

주요 실적

LG상사를 대리하여 미얀마 시멘트 사업 합작투자 자문

LG상사를 대리하여 미얀마 회사(블루다이아몬드)와의 시멘트 사업에 대한 합작투자 관련 자문 제공. LG상사 합작투자 법인은 미얀마에서 한국 투자자로서는 처음으로 시멘트 생산 공장을 준공하였음

신한은행을 대리하여 미얀마 외국은행 지점 라이선스 취득 자문

신한은행을 대리하여 미얀마 현지 지점 설립 관련 라이선스 입찰 업무를 수행. 신한은행은 한국계 은행 최초로 미얀마 은행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었음

- 미얀마 현지 목재 제조회사(미얀마 산림부가 합작투자한 회사)의 지분양수도 관련 법률/ 조세 실사, 합작계약서 관련 업무 자문
- 미얀마 현지 건설장비 서비스 회사(미얀마 철도운송부가 합작투자한 회사)의 지분양수도 관련 법률/ 조세 실사, 합작계약서 관련 업무 자문
- 인천국제공항공사 컨소시엄을 대리하여 미얀마 한따와디 신공항 건설사업 관련 자문
- 서부발전 컨소시엄을 대리하여 미얀마 발전사업 관련 거래구조 검토,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정부와의 협상 등 관련 자문
- 태국 투자자를 대리하여 미얀마 태양광발전 사업에 대한 법률실사 및 투자구조 관련 법률/ 조세 자문
- 미얀마 상수도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IPP) 관련 자문
- LG상사를 대리하여 미얀마 시멘트 플랜트 법률실사 및 합작투자 자문
- 한화(무역)을 대리하여 미얀마 주상복합 프로젝트 자문
- 대우 아마라 호텔 프로젝트 관련 합작투자계약, 호텔 운영 관련 계약 관련 자문
- BS캐피탈(변경 후 상호 BNK 캐피탈), 우리은행, IBK캐피탈, NH은행의 소액금융대출회사 설립 및 라이선스 취득 업무
- 시멘트(Y사), 식용유(C사), 전선(K사, L사), 전자부품(M사) 등 제조업 및 운송(Y사)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필라와경제특구에 진출한 다수의 한국 및 일본기업에 대한 투자 진출 법률자문

롯데그룹을 대리하여 미얀마 음료업체 MGSB 인수 자문

롯데칠성음료를 대리하여 미얀마 음료업체 Myanmar Golden Star Beverage(MGSB, 미얀마 3대음료회사) 인수 관련 법률검토, 실사 및 자산양수도계약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 롯데칠성음료는 MGSB와 합작투자해 LOTTE-MGS Beverage를 설립하여 미얀마 음료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었음

CJ대한통운을 대리하여 미얀마 국영기업 합작투자 자문

CJ대한통운을 대리하여 입찰 투자제안서 검토, 투자구조 검토, 합작투자계약서 작성, 법인 설립 및 MIC 투자승인 등 업무를 수행. CJ대한통운은 미얀마 정부의 물류 업무를 담당하는 미얀마 육상운송청과 합작법인 CJ KOREA EXPRESS-RT를 설립함으로써 미얀마에서 종합물류기업으로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하였음

미얀마 양곤 사무소의 강점

지평 미얀마 양곤 사무소는 다수의 한국 전문가들이 현지에 상주하며 법률자문 뿐만 아니라 회계, 세무 및 회계감사(협력사 포함) 자문을 수행함으로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 태국, 싱가포르를 비롯한 비한국계 고객을 3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점에 특색이 있습니다.

사무소장 인터뷰

미얀마 양곤 사무소장 장성 수석자문위원



언제 미얀마 사무소에 부임했는지?

미국이 2012년 7월에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하였는데 그 직후인 2012년 8월 2일에 부임하여 만 5년이 되었습니다.

미얀마 사무소의 특징과 강점은?

지평 해외사무소 중 가장 많은 4명의 한국프로(한국 변호사, 미국변호사, 한국회계사, 자문위원)와 6명의 미얀마프로 및 7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법률과 회계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여 고객의 니즈와 편리성을 우선으로 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사무소가 주로 하는 업무는?

기업의 미얀마 진출부터 영입에 이르기까지, 미얀마 각종 사업분야에 대한 리서치, 법인 설립, 투자허가, 기타 인 · 허가 취득, 종업원 고용 등 법률자문과 회계 · 기장, 세무대리, 법인세 신고, 조세 불복 등 법인 운영과 관련된 자문 뿐만 아니라, M&A, 소송 등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사무소의 주요 고객들은 어떤 업종들인지?

거의 모든 업종에 해당되나, 은행지점 및 대표사무소부터 시작하여 소액금융업인 MFI, 건설, 제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기업 뿐 아니라 지난 5년간 당 사무소 고객의 30% 가량이 일본 고객이며, 이중 일본의 대형상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얀마 경제와 한국기업 진출 현황 및 전망은?

2016년 말 미국 경제제재로부터 완전 해제되어, 외국기업으로부터의 투자열기가 높고, 연 경제성장률도 7.5% 이상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업은 현재 약 350여 개사가 진출하여 있고, 향후에도 건설 및 금융업 중심으로 추가 진출이 예상됩니다.



미얀마 사무소 향후 전략은?

미얀마 내의 진출 정보를 비롯하여 법률, 세무 · 회계에 이르기까지 지평 미얀마 사무소에 오면 모든 Solution이 있다는 평판을 쌓아 미얀마 제1의 로펌, 나아가 동남아 제1의 전문법집단이 되고자 합니다.

그동안 해외에서 일하면서 기억에 남거나 보람 있었던 일들은?

일본의 대형상사를 비롯하여 다수 일본기업의 법인 설립부터 법률자문, 세무 · 회계 자문 업무를 하고 있는 일, 미얀마에서 한국계 최초의 은행 지점 허가를 받았던 일, 대사관과 공조하여 불가능한 정부허가를 이끌어 냈던 일 등 해외에서만 느낄 수 있는 보람이 많습니다.



MJTD Sato Kan



델라와SEZ(경제특구)에 관해 말하면?

미얀마 양곤 근교에서 델라와SEZ(경제특구)를 현지 개발회사 Myanmar Japan Thilawa Development Ltd.(MJTD)를 통해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에 Zone A(405 ha) 개발에 착수하여 2015년 9월부터 조업을 개시하였습니다. 2017년 2월부터는 Zone B 제1기(101 ha) 개발에 착수하고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세계 17개국에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87개 회사가 델라와SEZ 투자를 결정하여(한국기업 6개사 포함), 69개 회사가 공장 건설을 개시하고 34개 회사가 조업을 개시하였습니다.

본인 소개 및 업무 내용을 소개하면?

저는 마루베니 주식회사에서 1997년부터 동남아시아 일대의 부동산개발에 종사하였습니다. 그 이후 주주인 마루베니로부터 2014년 9월에 MJTD에 파견 중이며 미얀마에 약 3년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업 담당 이사로서 미얀마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국적기업과 날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평과 어떻게 인연이 되었는지?

델라와SEZ를 판매 개시하고 반년 정도 경과한 후 문득 한국기업으로부터의 상담 건수가 극단적으로 적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시멘트 제조회사의 미얀마 SEZ법에 따른 투자인가 신청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지평 미얀마 장성 사무소장님과 논의해 보니 한국기업에게 델라와SEZ 인지도가 상당히 낮은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장성 사무소장님의 많은 도움을 받아 한국기업에 미얀마 및 델라와SEZ를 소개하기 위해 서울에서 2회, 양곤에서 1회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2017년 4월 서울에서 개최한 세미나의 참가자는 160명으로 성황이었습니다. 그 후 한국기업의 6개사가 델라와 투자를 결정한 것은 지평 미얀마 장성 사무소장님의 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평과 협업한 일본업체 사례는?

일본업체인 자동차부품 제조업 고무노이나키 주식회사에 대해 미얀마 SEZ법에 따른 투자인가신청 업무를 협업하였습니다.

지평과 함께 업무를 진행한 소감은?

미얀마는 한국기업을 포함한 세계 곳곳 투자자의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지평은 오랫동안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미얀마 관련 법률·세무·회계에 대한 이해가 깊고 진정한 프로로서 외국 투자기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투자기업에게 법무·세무·회계를 패키지로 제공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 지평 미얀마 장성 사무소장님을 필두로 한국어 뿐만 아니라 영어·일어에 능통한 스태프가 많고 친절한 자세도 외국투자자로부터 신뢰를 모으고 있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미얀마에서 지평에 거는 기대는?

미얀마 델라와SEZ에 대한 한국기업을 중심으로 한 유치에 더욱 더 협업을 부탁드립니다.

Myarnak Ryosuke Kobayashi



지평과 어떻게 인연이 되었는지?

미얀마 진출에 있어 회사설립, 등기방법, 미얀마 법률에 대해 아는 바가 전무하여 델라와에 있는 OSSC에 근무하는 JICA 분과 JETRO에서 근무하며 미얀마에서 일하고 있는 일본인 분에게 상담을 했더니 지평을 소개해 주신 것이 인연이 되었습니다.

미얀마 진출시 어려웠던 점은?

미얀마의 법률 자체가 오래된 법률로 애매하며 관공서의 대응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 결코 좋은 대응이라고 할 수 없어 회사를 설립해 나가는 것에 있어 고생을 하고 있는 진출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 번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였으나, 그러한 경우에 지평으로부터 조언을 받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제2공장을 건설 예정인데 관련 증자 절차, 투자허가를 위한 신청, 절차도 도움을 주셔서 무사히 공장건설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미얀마에서 지평에 거는 기대는?

미얀마의 법률과 세제가 정비되지 않은 부분이 많으며 해마다 개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정된 내용이 업무에 종사하는 일선까지 전달되는 것이 늦고



또한 개정된 것도 인식하고 있지 않거나 오해를 초래해 업무가 지체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개정된 법률의 안내와 미얀마에서 회사를 운영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의 주의점에 대해 계속해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지평에 하고 싶은 말은?

미얀마에서 회사를 운영해 나가는 것에 있어 어려운 점과 분명하지 않은 점에 대해 항상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미얀마에서 선구자로서의 경험과 풍부한 지식을 최대한 무기로 하여 앞으로도 더욱 더 발전하고 활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08

러시아 모스크바 사무소

주소 및 연락처

119002, 43, Sivtsev Vrazhek Lane
 Moscow, Russia
 Tel. +7-495-795-3268
 Fax. +7-499-241-1948
 E-mail. moscow@jipyong.com

Main Contacts

러시아 모스크바 사무소
 이승민 외국변호사(러시아)
 E-mail. smlee@jipyong.com
 Tel. +7-495-795-3268

본사 러시아 · 중앙아시아팀
 류혜정 변호사
 E-mail. hjryu@jipyong.com
 Tel. +82-2-6200-1722

설립일

2015. 4. 13.



사무소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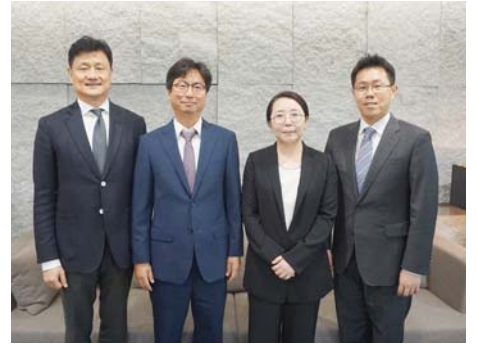
법무법인 지평은 2015년 4월 지평 러시아 모스크바 사무소를 개설하였습니다. 러시아 사무소는 러시아 현지 로컬 로펌인 YUST와의 전략적 제휴를 기반으로 60여 명의 한국과 러시아 법률전문가들이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사무소는 러시아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지역도 관할하며, 이 지역에서 수행되는 다양한 업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사무소는 본사 러시아 · 중앙아시아팀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한국과 러시아에서 동시에 법률자문을 제공하여, 고객의 업무 효율성 제고와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법률자문 영역 외 세무, 회계, 컨설팅 등 외부 자문사들을 통합하여 리딩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고객이 통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외국변호사(러시아)

-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학교(MGIMO) 국제법학부 졸업
-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학교(MGIMO) 대학원 국제법학부 법학석사(국제환경법)
-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학교(MGIMO) 대학원 국제법학부 국제법 박사(국제환경법)
- 러시아변호사(2000년)
- 공군 장교
- 법무법인 지평 시니어 외국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러시아 모스크바 사무소장



본사 러시아 · 중앙아시아팀 변호사

양영태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제24기 수료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수석파트너, Managing Partner
-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류혜정 변호사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 정치학 박사
- 성균관대학교, 카톨릭대학교 등 강사
-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 산업통상자원부 석유개발사업 용자심의분과위원회 위원
-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채희석 변호사(한국/ 러시아)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학교(MGIMO / MGIMO) 법과대학원 법학석사(금융 · 조세법) / 우등졸업/ Diploma with Honors)
- 러시아 변호사(2013년)
- 러시아 변호사회(The Association of Lawyers of Russia) 회원
-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김종윤 외국변호사(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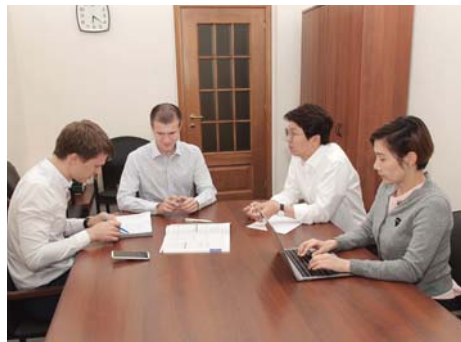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삼성물산(주) 카자흐스탄 법무주재원
- 미국 The University of Chicago Law School 졸업(LL.M.)
- 미국 뉴욕주 변호사(2004년)
- 삼성물산(주) 상사부문 법무팀장(상무)
- 법무법인 지평 시니어 외국변호사

김용길 변호사

-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삼성물산(주) 건설부문
-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이샘 변호사

- 독일 University of Paderborn, International Business Management Course 수료
-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주)제일기획 스포츠 사업팀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
-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주요 업무 분야

M&A, Joint Venture, 건설 · 부동산개발, 금융, 인프라 · 에너지 · 자원, 소송 등

주요 실적

인천공항공사를 대리하여 러시아 하바롭스크공항 지분 매각 관련 자문

인천공항공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러시아 하바롭스크공항의 풋업선 행사를 통한 지분 일부 양도 및 신규주식양수도계약(담보계약 포함) 체결 관련 법률자문으로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Exit를 한 첫 사례

KB국민은행을 대리하여 카자흐스탄 BCC 은행 주식 매각 관련 자문

KB국민은행이 소유한 카자흐스탄 BCC 은행 지분 41.9% 매각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

포스코대우를 대리하여 러시아 시베리아 삼림투자 관련 자문

러시아 법인인 코시우드에 유상증자 방식으로 포스코대우가 주주로 참여하면서, 코시우드 보유 별채권을 기반으로 한 목재벌채 및 가공 비즈니스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

간서스자산운용을 대리하여 러시아 사할린 PF사업 관련 자문

간서스자산운용이 설정한 간서스사할린부동산펀드를 대리하여, 러시아 PF 및 담보권 실행을 통한 투자자금을 회수하여 Exit를 한 첫 사례

노무 분쟁, 부동산 분쟁, 공급계약 채무불이행 관련 소송 외

O사를 대리하여 노무 분쟁 소송 수행, L사를 대리하여 부동산 분쟁 관련 소송 수행, B사를 대리하여 공급계약 채무불이행 관련 소송 수행, H사를 대리하여 선금금 반환 청구 관련 소송 수행, H사를 대리하여 특허침해 관련 수입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수행, K사를 대리하여 부동산 하자보수 소송 수행, K사를 대리하여 담보권 실행 소송 수행



- 한국서부발전을 대리하여 러시아석탄생산기업 인수를 위한 법률실사 및 자문
- 한국투자증권권을 대리하여 러시아 사할린 석탄광구 입찰 참여 자문
- 산업은행을 대리하여 카자흐스탄 유전광구에 대한 PF 및 담보권 설정 자문
- 계룡건설을 대리하여 러시아 부동산개발 관련 자문
- 메리츠자산운용을 대리하여 카자흐스탄 부동산개발기업에 대한 실사 및 관련 자문

러시아 모스크바 사무소의 강점

지평 러시아 모스크바 사무소는 한국 전문가들이 현지에 상주하며 법률자문 뿐만 아니라 회계, 세무 및 전략 컨설팅(협업사를 통해) 등의 업무를 협업 수행함으로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수의 현지 로펌과의 높은 수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풍부한 인적 리소스를 바탕으로 모든 분야에 걸친 법률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사무소장 이승민 외국변호사(러시아)



언제 러시아 사무소에 부임했는지?

2015년 4월에 러시아 사무소에 부임했습니다.

러시아 사무소의 주요 고객들은 어떤 업종들인지?

건설, 자동차, 자동차 부품, 호텔, 금융, 식품제조, 화학 등입니다.

러시아 경제와 한국기업 진출 현황 및 전망은?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국과 EU의 경제 제재로 환율이 평가절하되어,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간 경제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경제제재로 다수의 미국/ EU 투자자들이 철수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중국 및 터키

의 진출이 특징적입니다. 한국기업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신규 진출하는 한국기업의 수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한국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것을 계기로 한러 경제협력의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따라서, 양국간 경제협력 의지가 확인된다면, 그동안 러시아 진출에 소극적이었던 한국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러시아 시장 진출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러시아 사무소 향후 전략은?

당장은 한국기업들에 대한 법률자문이 주가 되겠으나, 향후에는 러시아 고객의 한국 및 동남아시아 진출 관련 법률자문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해외에서 일하면서 기억에 남거나 보람 있었던 일들은?

러시아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는 고객들의 인식이 조금씩은 개선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해도 충분히 결과를 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고 있다는 것에 개인적으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무소장으로서의 포부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을 기반으로 고객들로부터 고객의 업무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투명하고 바른 결과를 이끌어내는 전문가(지평 모스크바 사무소)라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지평 해외진출 10주년을 맞은 소회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발견하는 기간이 10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구성원의 노력으로 지금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 길을 보다 단단히 그리고 넓게 확대하는 것이 다음 10년의 과제라고 확신합니다.



협업 로펌 변호사 인터뷰

YUST 볼로마토프(Bolomatov, A.) 변호사



YUST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하면?

YUST는 러시아의 주요 로펌 중 하나입니다. 저희 고객은 러시아의 주요 기업들입니다. 저희의 목표는 고객에게 다방면에서 완전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러시아와 해외에서 변호사의 전문성 개발 및 명성을 유지 및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지평과 어떻게 제휴하게 되었는지?

YUST는 지평과의 제휴를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선두 로펌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지평 파트너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러시아 내 고객에 대한 열망 덕분에 지평과 YUST의 전략적 제휴가 이루어졌습니다. 지평과 YUST의 파트너 및 변호사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본 제휴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효율적인 협업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지평과의 업무에서 마음에 드는 점은?

지평은 수준 높은 업무, 모든 분야에 대한 요구와 적극성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목표 달성에 대한 지평 파트너 및 변호사들의 대담함과 철저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평과 협업하면서 최상의 업무 표준을 알게 되었고, 지평 파트너 및 변호사들의 실무 능력을 본받아 저희 업무에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평의 강점은?

지평의 강점은 고객 사이에서의 높은 명성과 풍부한 업무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YUST를 포함한 고객과 파트너들은 지평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업들의 러시아 시장 진출에 대한 의견 또는 조언은?

제 견해로는 한국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수년간 일하면서 러시아 비즈니스 특수성에 대한 올바른 접근법을 체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러시아 진출을 고려한 기업 및 고객들에게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현 상황을 고려해보면, 한국기업에 대한 러시아 측의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 한국 기업들을 위한 투자환경이 개선될 것이며, 러시아 정부기관이 한국 투자자들에 대한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09

이란 테헤란 사무소

주소 및 연락처

3F, No. 148, Dast Gerdi St. (former Zafar St.)
 Shariati St., Tehran, Iran
 Tel. +98-21-2290-3439
 E-mail. iran@jipyong.com

Main Contacts

이란 테헤란 사무소

배지영 변호사
 E-mail. jybae@jipyong.com
 Tel. +98-21-2290-3439

본사 이란 · 중동팀

류혜정 변호사
 E-mail. hjryu@jipyong.com
 Tel. +82-2-6200-1722

설립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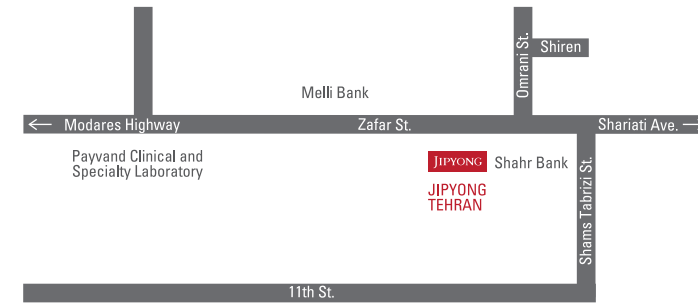
2015. 11. 4.



사무소 소개

법무법인 지평은 핵합의를 통해 대이란 경제제재가 해제되기 시작한 2015년 이란 테헤란에 진출하여 지난 3년간 한국기업 및 이란기업에 투자·분쟁 관련 각종 법률자문을 제공하면서 실무경험을 축적하여 왔습니다. 이란 테헤란 사무소장으로는 한국이슬람법학회 초대 학회장을 역임하고 영국 런던대에서 이슬람법 전공으로 법학석사를 취득한 배지영 변호

사가 선임되었으며, 현재 테헤란에 상주하면서 이란 변호사 및 현지 전문가들과 함께 고객에게 밀착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년간의 실무경험과 중동 지역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평은 다시 열리는 중동 최대 기회의 땅 이란에서 고객에게 안정적이고 실용적인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배지영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제38기 수료
- 한국 이슬람법학회 초대 학회장
- 영국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University of London, LL.M.(법학석사, Islamic Law, 우등졸업)
- 주이란대한민국대사관 법률자문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이란 테헤란 사무소장



본사 이란 · 중동팀 변호사

양영태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제24기 수료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수석파트너, Managing Partner
-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류혜정 변호사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 정치학 박사
- 성균관대학교, 카톨릭대학교 등 강사
-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 산업통상자원부 석유개발사업 용자심의분과위원회 위원
-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이태현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제36기 수료
- 미국 Fordham University LL.M.(법학석사)
-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이훈 외국변호사(미국)

- 미국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MI 졸업
- 미국 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 졸업(J.D.)
- 미국 뉴욕주 변호사(1998년)
- 미국 Ariel Research Corporation Staff Lawyer
- 삼성탈레스(삼성전자(주)와 (프)탈레스간 합작법인) 사내변호사
- 법무법인 총정 미국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시니어 외국변호사

강재영 변호사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 공군법무관
-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김관수 변호사

- 연세대학교 기계전자공학부 졸업
- SK텔레콤 상품개발팀
- 한국투자신탁운용 실물자산운용본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 CFA, 투자자산운용사 자격 취득
-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주요 업무 분야

직접투자, 투자허가 취득 및 회사 설립, 합작계약, 현지기업 M&A 및 지분인수, 건설 및 부동산개발, EPC 계약 및 클레임, 플랜트·자원개발·SOC, 금융·Project Financing, 현지법인의 노무·세무를 포함한 운영·조직변경 관련 자문, 현지 소송 수행 지원, 국제분쟁 및 국제중재 등

주요 실적

한국 케미컬 회사를 대리하여 이란 화학제품 제조 공장 설립 및 합작투자 관련 종합 자문

한국 케미컬 회사를 대리하여, 이란에 화학제품 제조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합작투자 관련 법적 리스크 및 투자 구조 분석, 미국의 대이란제재 관련 리스크 분석, 합작투자계약서 작성, 합작법인 설립 대행 및 현물출자, 법인 운영과 관련한 포괄적인 자문을 제공

한국 건설회사를 대리하여 이란 공사대금 회수를 위한 전략 수립 및 한국·이란에서의 소송 관련 자문

한국 건설회사가 이란에서 수행한 공사대금의 회수를 위한 전반적인 전략 수립, 이란 내 재산에 대한 가압류, 상대방에 대한 민·형사 소송 수행, 기타 이란 회사법 관련 자문을 제공

- 한국 투자자를 대리하여 이란 광고·물류회사에 대한 M&A 자문
- 한국 제조회사, 건설회사, 무역회사 다수를 대리하여 미수금 회수를 위한 전략 수립, 담보설정, 이란 내 소송 수행 등 관련 자문
- 한국 제조회사를 대리하여 이란 내 무역분쟁 관련 자문
- 한국 서비스회사, 에너지회사, 제조회사 등을 대리하여 이란 내 합작투자 관련 자문
- 한국 건설회사, 의료기 제조회사, 유통회사, 소비재 제조회사 등을 대리하여 이란 내 사무소 및 법인 설립 구조 및 운영 관련 자문
- 한국 제조회사 다수를 대리하여 이란 기술이전계약 체결 자문
- 한국 제조회사를 대리하여 상표 등록, 상표 보호 및 모조품 대응전략 관련 자문
- 한국 건설회사, 플랜트회사, 철강 기타 제조회사 다수를 대리하여 이란 경제제재의 적용범위 및 해석 관련 자문
- 법무부, 주이란대한민국대사관, KOTRA에 이란 법령 및 투자제도 관련 자문 및 용역 수행

이란 테헤란 사무소의 강점

지평 이란 테헤란 사무소는 한국 로펌 중 유일하게 한국변호사가 현지에 상주하면서 밀착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법제도 및 행정실무의 파악이 쉽지 않은 이란의 법률 환경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년간의 현지 업무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외국인 고객이 접근하기 어려운 최고 수준의 현지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하여 고객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실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 IT 회사, 소비재 제조회사, 화장품 제조회사를 대리하여 이란 Distributorship Agreement 체결, 에이전트 등록, 해지 및 분쟁, 상표권 이슈에 대한 자문

한국 유수의 IT 회사, 소비재 회사, 화장품 회사를 대리하여, 이란 에이전트와의 Distributorship Agreement 검토, 관할 정부기관에 에이전트 등록 관련 자문, 에이전트 변경, 타절 관련 분쟁, 상표권 이슈 등에 대한 포괄적인 자문을 제공

사무소장 인터뷰

이란 테헤란 사무소장 배지영 변호사



언제 이란 사무소에 부임했는지?

2015년 11월에 부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두바이에서 거주하며 절반 정도 이란에 출장을 다니며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7년 1월에 이란 사무소를 확장·개소하면서 이란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이란 사무소의 특징과 강점은?

이란 현지에 진출한 유일한 한국 로펌이다 보니, 고객에게 밀착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신속하고 실용적인 현지법 자문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란은 외부에 공개된 법률 정보가 적고 부정확하며, 신뢰할 만한 실무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지역이라 현지에 체류하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란 사무소가 주로 하는 업무는?

한국기업의 이란 투자 관련 자문을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합작투자를 비롯한 직접투자 및 M&A 관련 자문, 법인 설립 및 운영 관련 자문, 수출업체의 에이전트쉽 관련 자문, 기타 이란 내에서의 분쟁 관련 자문까지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란 사무소가 수행한 업무들 중 대표적인 것을 소개하면?

최근에 이란에 화학제품 제조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합작투자 관련 포괄적인 자문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핵협상 타결 이후 한국 대기업 계열사 중 최초로 이란에 합작투자를 한 건인데, 법적 리스크 및 투자 구조 분석, 미국의 대이란제재 관련 리스크 분석, 합작투자계약서 작성, 합작법인 설립 대행 및 현물출자, 법인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란 사무소 향후 전략은?

당분간은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구사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이란의 현지법 시장은 영어가 가능한 소수의 개인 변호사 사무소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각 분야별로 유능하고 경험 많은 현지 변호사들을 발굴하고, 저희 사무소 자체적으로도 실무와 관련한 중요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면서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입니다.



현재 업무와 생활은 어떠한지?

이란은 오랫동안 외국과의 교류가 원활하지 않았던 관계로, 외국인을 위한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생활도 상당히 불편한 편입니다. 업무적인 측면에서도 법제도의 정비가 더디고 불투명한 부분이 많아서 상당히 어렵고 고됩니다. 그렇지만, 이란도, 저희 사무소도 매일매일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무소장으로서의 포부는?

다시 열리는 이란 시장에서 한국기업이 정착하고 성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년 후에 고객과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핵협상 이후 한국기업의 이란 진출 역사에 지평 이란 사무소가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더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KOTRA 테헤란 무역관 김승욱 관장



본인을 소개하면?

KOTRA 전 테헤란 무역관장 김승욱입니다. P5+1간의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14. 8. 1.부로 부임하여 2017. 7. 31.까지 근무하였습니다(현재는 본사 경제협력지원실장으로 근무 중입니다).

이란은 인구가 8,100만 명에 달하는 중동 최대 시장으로, 지난 2016년초부터 경제제제가 해제되기 시작한 이란 시장의 잠재력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이란은 우선 8천만 명이 넘는 인구로 1인당 GDP는 약 5천불 수준이나 PPP(구매력기준)로 보면 약 1만 1천불 정도로 탄탄한 내수시장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변의 시아파 중심 국가를 포함하면 총 인구 3억 명에 육박한다는 점도 이란 시장의 외연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사우디, 이집트 등과 함께 우리의 중동 3대 수출시장입니다. 또한 매장량 기준으로 세계 2~3위를 차지하고 있는 석유, 가스 등을 비롯하여, 철광석, 아연, 구리 등 천연 광물자원이 매우 풍부합니다. 이를 배경으로 다양한 EPC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우디, 쿠웨이트 등과 함께 중동 내 3위의 규모를 자랑하는 이란의 프로젝트 시장은 제재 해제를 계기로 더욱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석유산업 의존 탈피를 위해 이미 90년대 후반부터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여 산업기반이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드물게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전자제품의 생산이 가능합니다. 제재 해제를 계기로 국내생산 체제의 확대 및 강화를 서두르려는 이란 정부의 정책은 더욱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이 실현되는데 중요한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커다란 강점입니다. 이란은 3분의 2가 30대 이하의 젊은 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고등교육 이수자입니다. 이란의 명문대로 꼽히는 샤리프 공대의 졸업생은 서구의 우수 기업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데려간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점하여, 중앙 아시아 등 주변 국가와의 물류 공급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어,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도 이란은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세계 정세, 특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이란 로하니 대통령의 재선이 우리 기업의 이란 진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지?

대외개방, 교류협력을 통한 경제성장을 표방하고 있는 로하니 대통령의 재선은 전체적으로 이란의 경제 환경 개선과 우리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생산기반 강화 정책의 강력한 추진이 수입에 대한 억제책(관세 인상, 수입 라이선스 취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 및 기업별로 온도 차가 존재할 것입니다.

아울러,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 이란 강경 노선 유지가 이란 시장 리스크를 높이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강경 발언, 북한, 러시아와 함께 이란에 대한 제재 패키지법안 서명 등으로 제재 복원(Snap Back)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협협상 합의를 깨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또한 핵합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 기업이 대이란 비즈니스를 하는 상황에서 미국기업만이 배제되는 상황을 비즈니스맨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이 수수방관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핵협상 타결에 따른 대이란 제재 유예 법안 서명도 그러한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시장에서 한국기업들이 노력할 만한 유망업종과 각 분야별 주요 프로젝트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석유 및 가스, 석유화학, 물류·인프라, 발전, 병원·의료, 신재생에너지, 도시개발, ICT 등 거의 전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와 규모의 프로젝트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프로젝트 계획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있는 만큼 특정 분야를 한정해서 유망하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각 기업의 전략, 경험 및 역량 등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우리 기업들도 Refinery, 댐·수처리, 철도·도로, 에너지 절감, 병원·의료 분야 등에서 구체적인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위험이 높고 자원 조달이 핵심인 시장이니 만큼 ‘정부보증 가능 프로젝트’, ‘재원이 마련된 중·소형 민간 프로젝트’, ‘off take 처리 가능 분야 프로젝트’, ‘국내외기업간 협업 가능 프로젝트’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시장 진출시 한국기업이 특히 유의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란은 ‘위험관리’가 가장 중요한 시장입니다. 무엇보다도 대외적으로는 제재 복원(Snap Back)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등 외교적인 위험도 높은 상황입니다. 국제관계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란 내부적으로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지 않은 점도 충분히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일례로 법규나 정책 등에 대해 외국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우며, 실행과정도 복잡하거나 일관성이 부족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제재하에 있었던 이란은 금융기관, 환율 등 경제구조 개선도 필요한 실정으로 이란 정부도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과도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감안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란 시장과 관련한 향후 KOTRA의 중심적인 사업추진 방향은 무엇인지?

제재 해제를 계기로 우리 기업들의 대이란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 및 다양화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재기간 중 2천여 개로 축소되었던 대이란 교역기업의 숫자를 제재이전으로 복원(3천개사) 및 확대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이를 위하여 핵협상 타결을 계기로 테헤란 한국상품전 개최와 더불어 플랜트기자재, 전력기자재, 의료분야, 자동차부품 등의 전략 산업분야에서 국제전시회 한국관 참가, 무역사절단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플랜트수주지원센터를 테헤란 무역관 내에 두고 도로도시개발부(MRUD), 석유공사(NIOC), 가스공사(NIGC) 등 이란의 주요 발주처와 국내기업과의 협상을 지원키 위해 방한 초청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란 시장에 대한 각종 정보의 수집·전파 활동을 강화해왔고 ‘이란진출 가이드’, ‘이란 프로젝트 수주 가이드’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대이란 진출 지원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코트라 본사에 ‘이란진출지원단(현재는 전략시장진출지원단)’을 설치하였고, 테헤란무역관의 인력도 점진적으로 증원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업의 이란 진출을 위해 한국 로펌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강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내·외부적인 요인으로 우리 기업이 이란과의 비즈니스를 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각종 법규 및 정책 확인 곤란, 행정의 투명성 및 일관성 부족, 시장정보 부족, 비즈니스 파트너에 대한 객관적 정보 부족, 글로벌 표준의 적용 곤란 등 우리 기업이 실제 비즈니스 진행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

서 전문적인 식견, 경험 및 사례를 토대로 표준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줌으로써 위험을 사전에 최소화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행과정과 사후 해결에 있어서도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현지 시장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은 현지 또는 제3국 로펌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폭풍우 속 바다의 등대와 항구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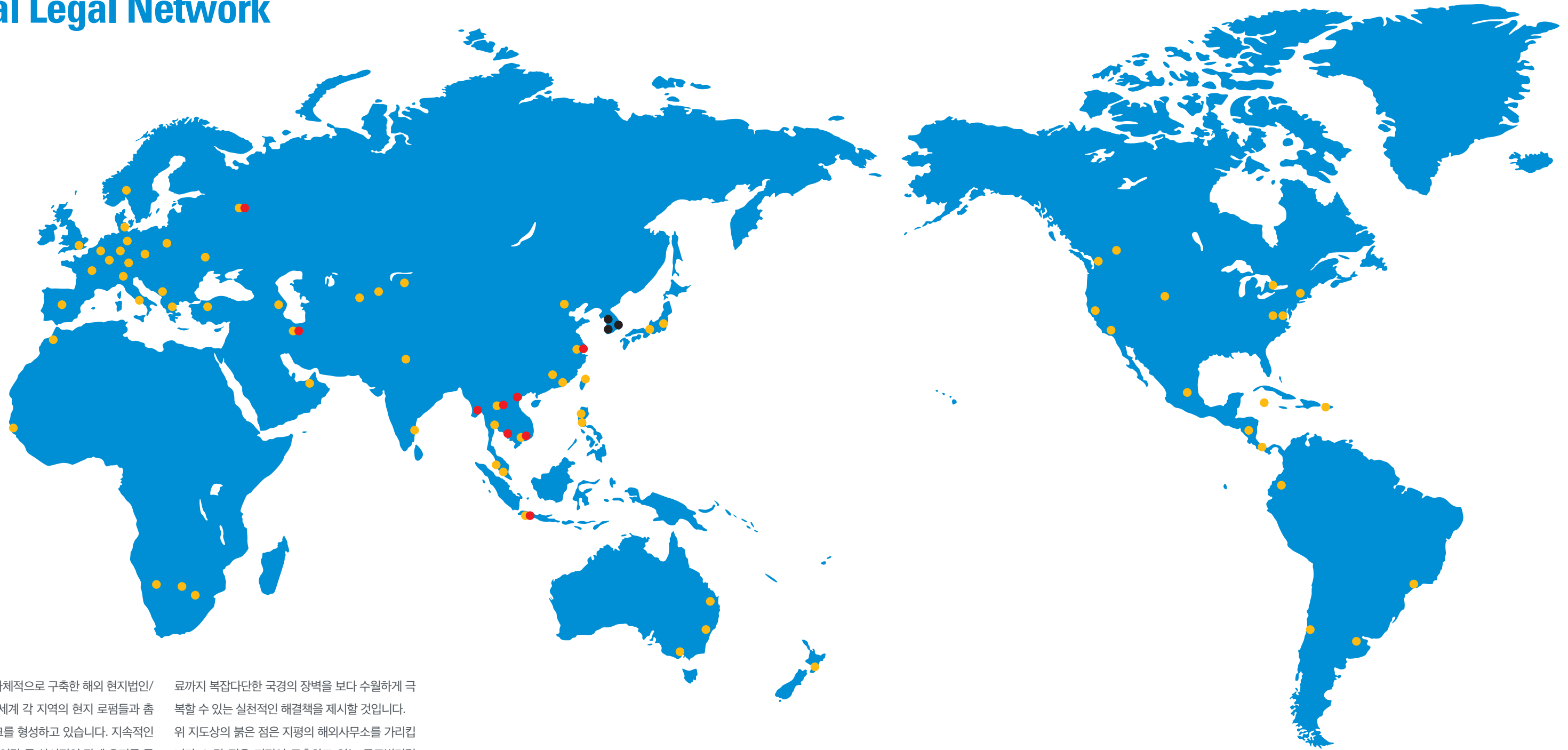
해외진출 10주년을 맞이한 지평에 하고 싶은 말은?

지평의 해외진출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서포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신 점에 대해 무역진흥기관의 일원으로 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짧은 기간이지만 ‘이란진출 가이드’, ‘진출기업 대상 노무세미나’ 등 여러 협력 사업을 통하여, 우리 기업의 이란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지평 이란 사무소에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해외 더 많은 곳에 사무소가 개설되어 우리 기업의 위험과 애로를 해소해 주시는데 더욱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지평의 Global Legal Network



지평의 협력 로펌

법무법인 지평은 자체적으로 구축한 해외 현지법인/사무소 외에도 전 세계 각 지역의 현지 로펌들과 촘촘한 협업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업무 협조 및 상호 연락 등 상시적인 관계 유지를 통해 각 지역의 현지 로펌들과 즉각적인 협업 체계 구축이 가능합니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전 세계 리걸네트워크는 고객이 원하는 어떤 지역에서도 효율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법무법인 지평은 글로벌 원스톱 서비스를 지향하며, 고객의 해외투자 의사결정에서부터 최종적인 투자 완

료까지 복잡다단한 국경의 장벽을 보다 수월하게 극복할 수 있는 실천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위 지도상의 붉은 점은 지평의 해외사무소를 가리킵니다. 노란 점은 지평이 구축하고 있는 글로벌리걸네트워크 내의 해외 현지 로펌이 있는 도시입니다. 전 세계 거의 전 지역을 망라하는 리걸네트워크를 통해 해당 지역의 국지적 이슈 외에도, 한국과 해당 지역 사이의 국가 간 이슈, 나아가 제3국을 경유하는 한국과 해당 지역 사이의 다중적 국가 간 이슈의 해결도 가능합니다.

지평 해외사무소

9

협력 로펌(도시)

69

- 붉은 점은 지평의 해외사무소입니다.
- 노란 점은 지평이 구축하고 있는 글로벌리걸네트워크 내의 해외 현지 로펌이 있는 도시입니다.
- 검은 점은 지평 본사 및 국내사무소입니다.

지평의 기타 해외지역 업무

법무법인 지평은 해외사무소가 없는 해외지역의 경우에도

당해 지역 협력 로펌과 협력하여 활발하게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아래는 각 해외지역별 주요 업무 실적입니다.

일본



- 현대증권을 대리하여 일본 오사카 소재 물류센터 매입 자문
- 포스코 ICT를 대리하여 일본 KUNIMI 태양광발전 EPC 계약 자문
- 일본 바이오업체 교토바이오파마를 대리하여 에이스하이텍에의 매각 관련 자문
- 현대증권을 대리하여 일본 동경도 내 상업용 부동산 투자(약 900억원 규모) 및 일본 동경도 내 오피스빌딩 투자(약 700억원 규모) 관련 자문
- 일본기업을 대리하여 한국거래소 상장 업무 자문(다수)
- 한국기업을 대리하여 일본 자동차부품회사와의 한국 내 JV 설립, 기업결합신고 등 자문
- 한국기업을 대리하여 일본기업 M&A 관련 자문(다수)
- 한국기업과 일본기업 간의 특허권, 저작권 관련 분쟁 자문 및 소송 대리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상장회사 및 그 계열사를 대리하여 지분인수 자문
- 한국 철강회사를 대리하여 말레이시아 철강회사 인수 자문
- Posco South Asia(PSA)를 대리하여 PSA의 말레이시아 지점 설립 업무
- 한국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말레이시아 보험회사 인수 관련 법률검토

인도



- 한국 기계장비업체를 대리하여 인도 회사와의 선박계약 관련 분쟁 자문
- 한국 물류회사를 대리하여 인도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약정 및 JVA 검토 자문
- 중국 회사를 대리하여 인도 투자를 위한 MOU 등 체결 검토

태국



- 한국물류기업의 태국 내 합자법인을 태국과 미국 간의 FTA에 근거하여 100% 단독투자법인으로의 전환 신청 및 허가 취득 업무 자문(업계 첫 성공사례)
- 국내 은행을 대리하여 태국 통신회사를 상대로 채권회수를 위한 소송 자문
-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신탁운용을 대리하여 태국 사모사콘시의 생활폐기물 처리사업 관련 BOT 사업 투자 자문
- SM엔터테인먼트를 대리하여 태국 미디어그룹 트루비전과의 해외 합작법인인 'SM True Co.,Ltd.' 설립 자문
- CJ GAMES를 대리하여 BOI(태국투자청) 등록회사의 M&A 관련 자문
- 한국 증권회사를 대리하여 태국의 항공기파이낸싱 계약 및 담보 실행 등에 관한 자문
- 국내 은행을 대리하여 태국의 항공기 및 항공료 자산담보부대출거래(ABL) 자문

필리핀



- 포스코건설을 대리하여 필리핀 화력발전소 EPC 계약 체결 관련 자문
- 한국 금융회사를 대리하여 Micro-Financing 조인트벤처회사 설립 자문
- 대상(우)을 대리하여 물엿공장 건설 및 합작법인 설립 자문
- 한국 증권사 및 해운사를 대리하여 수빅특구 리조트, 호텔, 골프장사업 및 PF 자문
- 한국 건설사를 대리하여 세부 호텔, 리조트 개발사업 자문
- 한국 증권사를 대리하여 앙헬레스 포락 주택단지 개발사업 및 PF 자문
- 국내 은행을 대리하여 클락특구 리조트 개발사업 및 PF 자문
- 카페베네를 대리하여 필리핀 진출 자문

북미



- 키움자산운용을 대리하여 달라스 KPMG 빌딩 매입 자문
- SK에너지, 삼천리자산운용, 산업은행이 공동 GP로 운영하는 트로이카 해외자원개발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대리하여 캐나다 석유생산업체 벨라트릭스사 유가스전 지분인수 자문
- 유진투자증권을 대리하여 미국 비상장기업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에서 발행하는 원화표시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업무
- 캐나다 주상복합아파트 개발 Project Finance 자문
- 미국 뉴프라이드 한국거래소 상장(미국기업 1호 상장) 자문
- LS-Nikko동제련을 대리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Scrap Gathering/ Trading 회사 인수 관련 현지 법률실사 및 자문
- 미국 캘리포니아주 팜스프링 리조트 개발 Project Finance 자문
-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드 리조트 및 컨벤션센터 개발 Project Finance 자문
- 미국 뉴저지주 복합주거단지 개발 관련 초기 자문

아프리카



- 칸서스자산운용을 대리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 부동산개발사업 및 매매 관련 자문
- 한국 정보통신회사를 대리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 IT 관련 입찰 자문
- 한국 건설회사를 대리하여 모로코 프로젝트 MOA 등 작성 자문
- 한국 건설회사를 대리하여 모로코 EPC 하도급계약 등 검토 자문
- 한국 자산운용사를 대리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 택지개발사업 Project Finance 자문
- 한국 건설공사를 대리하여 알제리 신도시건설 프로젝트 관련 컨소시엄 구성 등에 관한 자문

호주 · 뉴질랜드



-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을 대리하여 호주 빅토리아주 유료도로사업 지분인수 자문
- 포스코와 STX를 대리하여 호주 Roy Hill Holdings Pty Ltd. 지분인수 자문
- 광물자원공사를 대리하여 호주 자원 관련 상장기업 및 캐나다 철광기업 인수 자문
- 한국기업을 대리하여 General Motors, Australia를 상대로 한 소송 자문
- 뉴질랜드 주상복합아파트개발 Project Finance 관련 자문

유럽



- (주)이지바이오를 대리하여 영국 바이오 회사 Pathway Intermediates Inc. 지분인수 자문
- 하나자산운용을 대리하여 폴란드 포즈난 소재 아마존닷컴의 물류센터 매입 자문
- 하나자산운용과 한국투자증권을 대리하여 폴란드 브로츠와프 소재 아마존닷컴의 물류센터 매입 자문
- 세아제강을 대리하여 이탈리아 강관업체인 이녹스테크 지분인수 자문
- 오스트리아 중장비업체 Palfinger를 대리하여 엠씨티엔지니어링 자산인수 자문
- 영국 스코틀랜드 부동산개발

브라질 · 중남미



- 한국 펀드를 대리하여 브라질 쓰레기 처리장 및 발전시설 프로젝트 자문
- 한국 대형 종합상사를 대리하여 브라질 무역 관련 소송 자문
- 한국 물류회사를 대리하여 브라질 현지법인 설립 관련 자문
- 한국 대기업 M&A 관련 브라질법인 실사
- 국토해양부를 대리하여 글로벌인프라펀드 사업과 관련한 페루하수처리시설건설에 대한 페루법제 연구용역 수행
- 남동발전을 대리하여 에콰도르 LED 발전소건설 프로젝트 관련 법률실사

지평의 Global Vision



지평의 해외업무를 선도해온 시니어 변호사들이 모여 지평의 Global Vision에 관하여 좌담회를 가졌습니다.

- 사회 정철 파트너변호사(해외업무 담당 경영위원)
- 토론 양영태 대표변호사
- 임성택 파트너변호사(경영위원)
- 김상준 파트너변호사
- 이행규 파트너변호사
- 류혜정 파트너변호사

정철 | 지평이 해외진출을 시작한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해외사업의 비전과 과제를 세워보았으면 합니다.

양영태 | 다른 대형 로펌들보다 늦게 설립된 지평은 차별화 전략으로서 '글로벌 전략'을 추진하였습니다. 한국기업들의 해외진출이 확대되면서 해외법률 자문 수요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에만 사무소가 있는 대부분의 한국 로펌들은 해외 로펌의 자문 의견을 그대로 전달하는데 그쳐서 고객들의 니즈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평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해외에 사무소를 설립하고 본사 변호사를 해외에 파견하여 현지 변호사들과 함께 고객들에게 직접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을 택한 것입니다.

김상준 | 그 결과 해외에 진출하려고 하거나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해외 현지에서 지평의 한국인 변호사로부터 우리 말로 현지법에 대한 자문을 신속하고 상세하게 받을 수 있게 되어 만족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기업의 해외진출 실무자나 현지 주재원들은 거의 다 비법률부서 출신들로서 까다롭고 불명확한 현지법 이슈에 관하여 현지 변호사들을 직접 상대해야 한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한국인 변호사들의 해외 현지 등장은 해외 비즈니스에 하나의 획을 그은 일이었습니다.

이행규 | 지평은 해외사업 추진을 통해 유수 대기업들 및 대형 금융회사들의 해외 진출 자문을 하면서 고객들을 확대할 수 있었고, 수입사건 수와 매출도 증대되었으며, 후배 변호사들의 파트너 포지션도 많이 늘릴 수 있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임성택 | 그런데 그동안 해외진출에 소극적이었던 대형 로펌들이 최근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외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한국 로펌들 간에 해외에서의 경쟁이 격화되고 덩핑전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평의 글로벌 전략도 심화·발전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류혜정 | 해외사무소의 현지화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평 해외 사무소는 경쟁력 있는 현지 로펌이 되어야 합니다. 현지법 전문성을 계속 쌓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우수한 현지 변호사들이 사무소의 주인으로 자리잡게 하고, 현지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김상준 | 해외사무소의 업무 분야 확대도 필요합니다. 해외진출시 필요한 M&A, JV 등 자문 외에 진출 이후 현지 경영활동에서 필요한 자문, 즉, 노동, 조세, 소송, 공정거래, 지적재산권, 환경 등 분야의 법률서비스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본사의 관련 전문팀들과 연계하여 이러한 분야의 자문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정철 | 미얀마 사무소의 경우 고객의 30% 정도가 일본기업 등 비한국계 고객인데, 이를 더 확대해 나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다른 해외사무소의 고객은 아직까지는 대부분 한국기업들인데, 고객의 다국적화가 필요합니다. 지평 해외사무소가 한국 법률사무소를 넘어서 현지 로펌이 되는 문제와 궤를 같이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양영태 | 현재 9개인 해외사무소를 더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동남아의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및 인도, 홍콩, 일본, 극동 지역과 중앙아시아, 독일과 동유럽, 터키와 중동, 미국과 브라질 및 중미, 남아프리카 등이 후보인데, 10여 개는 더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행규 | 여러 사정상 해외사무소 설치가 어려운 지역도 있는데, 이 지역들은 지평 글로벌리얼네트워크를 통해 그 지역의 우수한 로펌과 협력하여 지역전문성을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고객이 진출하고자 하는 전 세계 어떤 지역이라도 현지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임성택 | 해외사무소에 나가는 본사 한국인 변호사들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외업무를 전문화할 변호사들을 본사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해외에 파견하고, 여러 해외사무소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류혜정 | 지평 본사의 해외업무팀도 국가지역별 편성 뿐만 아니라 고객기업별로도 편성하여 고객 서울 본사 법무팀, 글로벌사업팀 등에게 해외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법률서비스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양영태 | 한국기업이 진출한 해외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국제분쟁 해결, 해외노동 자문 등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여러 지역에 현지법인과 공장을 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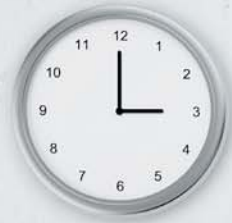
있는 한국기업들의 경우 신뢰할 수 있는 한국계 로펌이 전 세계적으로 현지화된 자문을 제공해줄 수 있기를 바랄 것입니다.

임성택 | 한국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도 그렇고, 한국 지식산업의 국제화를 위해서도 한국 로펌의 해외진출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지평의 경우 동남아시아 국가의 법제 구축지원 사업도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데 국가적으로도 공익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양영태 | 장차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전반을 지원하는 글로벌비즈니스 컨설팅회사의 설립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철 | 해외진출 10주년을 맞아 앞으로의 해외사업 방향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지평의 비전 중 하나인 '글로벌 로펌'을 이루기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평의 시간은 - 세계의 시간입니다 !



Seoul



Shanghai



Ho Chi Minh City



Hanoi



Phnom Penh



Vientiane



Jakarta



Yangon



Tehran



Moscow

아시아 대표 명문 로펌

법무법인 지평 JIPYONG

법무법인 지평(JIPYONG)은 2000년에 설립된 한국의 leading law firm으로 현재 180여 명의 변호사, 외국변호사, 회계사 등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은 최고의 실력과 정성으로 고객에게 헌신하는 로펌으로, 사람중심의 정신과 진정성에 입각하여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실천적 해결책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은 소송·중재, M&A, 기업일반·국제거래, 금융·증권·사모펀드, 건설·부동산, 공정거래, 노사관계, 도산·구조조정, 조세, 지적재산권, 정보통신, 자원·에너지·인프라, 제약·바이오·의

료, 엔터테인먼트·미디어·문화, 형사, 해상, 상속·가사·가업승계, 헌법소송, 공공계약, 입법지원, 해외업무, 북한업무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지평은 해외업무에 특화하여 중국, 러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및 이란에 9개의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 해외업무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지평은 업무전문성 뿐만 아니라 윤리성과 공익성 및 민주성을 실천하는 바람직한 법률전문가 공동체를 만들어 사회에 공헌하고자 합니다.

Vision

-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명문 로펌
- 최고의 실력과 정성으로 고객에게 헌신하는 로펌
- 구성원들이 행복한 로펌
- 사회에 공헌하는 법률전문가 공동체

Values

- 사람중심
- 진정성
- 진취성
- 윤리성